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무인전화 080 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9월 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 의복의 상징

의복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삼요소의 하나다. 또한 의복은 착용한 사람의 사회적 직능과 성향을 상징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출가 수행자들에게 승복은 그 자체로 지니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포교의 방편도 함께 다양해져 스님들의 의제(衣制)에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의제부터 법계에 따라 제대로 착용하는것이 승풍기강확립의 첫걸음이라는 시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과 조사들은 승복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짚어본다. 〈편

출가자는 사의법(四依法)에 의해야한다. 그것은 비구가 출가생활에서 있을 바 원칙으로써 의(衣)는 분소의(糞掃衣)에 의할 것, 식(食)은 걸식(乞食)에 의할것, 주(住)는 나무아래 앉을 수 있는 곳에 의할것, 약은 부란약(腐爛藥)에 의할 것을 말한다. 〈사분율〉

분소의는 쓰레기장 기타등에 버려진 헤진 천을 주워서 엮어 맞춘 의복이다. 견, 면, 양모, 마, 나무껍질, 새털, 풀을 재료로한 옷이나 죽은 사람을 쌌던 무덤 사이에 버려진 것, 의식에 쓰여서 버려진 것도 분소의다. 〈사분율〉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않는 것도, 단식 나체 삭발 결발 먼지, 거친사슴가죽을 입는 것도 화신(火神)을 섬기는 것도, 불사(不死)를 얻기위한 고행도, 베다의 주문 공양 제사나 계절에 따른 고행도 모두 의욕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숫타니파타〉

나는 일체의 옷을 저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또한 저축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어떤 옷을 저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가. 만일 옷을 저축함으로써 곧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더하게 하고 착한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런 옷을 저축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옷을 저축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꼭 착한 법을 더하게 하고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러한 옷은 저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중아함 자관심경〉

명예나 의식(衣食) 등의 이익을 생각치 말고 온갖 공덕이나 이익등을 탐내지 말며 세상법에 마음을 걸리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백장 회해선사 어록〉

지혜가 뛰어난 제자는 행복한 사람(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음식과 침구와 가사의 때를 세탁할 물을 조심해서 사용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음식을 씻고 침구와 가사를 세탁할 물같은 것에 집착하여 더럽히는 일이 없다. 마치 연꽃위에 구르는 물방울처럼. 〈숫타니파타〉

관련기사 2면

해인골프장 반대 세계여론에 호소

48만명 서명…유네스코에 진정서
부다피아 인터넷통해 '해외서명' 전개

해인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서명자가 지난 8월29일로 48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인골프장건설저지 해인총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덕곡면대책위 등은 지난 8월30일 서울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팔만대장경과 장경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점을 유념, 유네스코(UNESCO ·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에 보존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세계여론의 압력이 해인골프장 사태해결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인총림대책위는 "해인골프장 사태는 팔만대장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하려는 한국민과 인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문화유산협약'에 따라 골프장 건설 허가취소 등 정부의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촉구했다.

해인총림대책위는 유네스코 협약에 의해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서 중대하고도 특별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에 기재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인대책위는 또 "1988년 재택된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권고'에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기준은 그 국가의 영토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인사와 3.5km 떨어져 문제가 없다는 가야개발의 주장은 유네스코 권고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인대책위는 이에따라 "장경각과 경판에 대한 완벽한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주변 환경을 변경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태녕 서울대명예교수는 "골프장에서 뿌려지는 농약의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농약으로 인해 장경각 주변의 생태과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인대책위 지산스님은 "세계문화유산 보호라는 차원에서 세계여론에 호소키로 했다"고 밝히고 "대법원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부다피아'에서도 9월 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해인골프장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외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과 선학원 관계자들은 지난 8월 27일 만나 갈등을 청산하고 불교중흥을 위해 함께 노력할것을 다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선학원 "화해악수"

'현안 협의기구 설치' 등 4개항 합의

정관계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조계종 총무원과 재단법인 선학원이 그동안의 불편한 관계를 종식하고 한뿌리임을 선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은 지난 8월 27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만나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하는 공동발표문에 합의하고 화해의 악수를 나눴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을 다지는 단초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조계종을 바탕으로하는 선학원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불교중흥을 위해 원력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도 "재단법인 선학원과 조계종은 연원에 있어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절차방법을 놓고 두해동안 갈등이 빚어졌으나 앞으로 한뿌리임을 재확인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부장스님들과 선학원 이사스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 양측은 △조계종과 재단법인 선학원은 한뿌리임을 확인하며 그동안의 갈등과 불편한 관계 종식 △선학원 임원들의 제적원 철회와 선학원에 대한 종단의 규제 해제 △선학원 재단 내부규정에 "재단의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 신설 △현안문제해결을 위해 협의기구 설치등 4개항을 합의했다.

이로써 8월3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자교육원에 선학원 소속 행자 11명이 추가로 입방했다.

향후 조계종과 선학원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게 될 협의기구는 양측 4~5명으로 구성하고 9월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스님 노후 연금제' 실시 3·15면

산문폐쇄도 불사
월주 총무원장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월간 〈환경운동〉 9월호 특별인터뷰에서 가야산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화

조계종 총림을 비롯 전국 선원과 사암은 지난 8월28일 불기 2540년 하안거를 해제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은 통도사에서 해제법어를 통해 "깨친 뒤 무행이면 알음알이요 머리속 알음알이 구

병자년 하안거 해제

두선이라"며 "마음속 부처를 증득한 뒤에야 훤훤한 대도사 되리라"고 했다. 〈관련기사 4면〉

이번 하안거에는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수덕사 백양사등 5대총림을 비롯 66개 선방에서 1천8백여 대중이 3개월간 정진에 임했다.

후진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해인골프장 건설이 강행될 경우 주요 사찰의 산문폐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가대학원 은해사에 설립

10월7일 개원…승납 10년이상 학인모집

조계종이 승가대학(강원)과 학림의 전문교수인력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승가대학원이 10교구본사 은해사에 설립되고 오는 10월7일 개원한다.

조계종 교육위원회(의장 원산)는 지난 8월 23일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하고 학인모집을 공고했다. 응시자격은 승납 10년이상의 승려로 △강원 사집과목 중강경력 2년이상자 △불교학 관련 석사학위소지자 △강원과 동국대 또는 강원과 중앙승가대학의 두 교육기관을 모두 졸업한자로 9월21일까지 응시접수를 받는다.

승가대학원은 3년과정으로 사교, 대교, 수의과목을 수학하고 졸업자는 승가대학과 학림의 교수자격이 부여된다.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귀일 수정사주지: 의성 금성여상 금성중 · 고(2구좌) △남삼연: 부산 예문여고(2구좌) △김기현: 광주 전남고 고흥중(2구좌) △심영자: 언남고(1구좌)
〈8월29일 현재 총 445구좌 접수〉

어떻게 참여하나

◇보급기간: 1996년 12월 31일까지
◇보급대상: 전국 중 · 고등학교 각 1점씩 총 4,568점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누구나 가능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 · 출신모교 · 자녀가 다니는 학교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팔만대장경 뱃길이운 답사 14면
장애인 1일 병영체험 11면
회당대종사 생애 '교성곡으로'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32-1530-3

우리들의 미래와 청소년을 위한 대행스님 큰법회

9월15일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만납시다



이 세계는 지금까지 너무나 물질적인 발전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자유인의 길을 일러주신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는 일의 시급성은 불자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수행에만 전념하면서 외부와 문을 닫고 사는 불교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명소 "불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라고 강조해 오신 대행 스님을 모시고 봉행하는 이번 큰법회는 우리 모두에게 대자유의 길을 열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합장

고라는것,
그것은 결코 피할 대상도,
싫다거나 좋다거나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묵연히 수용할
대상일 뿐입니다.
오면 오는 대로 놓고,
가면 가는대로놓는 중에 그
것이 마음 바탕과
둘이아닌
이치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때 고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대행스님 법어중에서 -

• 주제 : 한마음의 인생살이에는 고(苦)가 없다
• 일시 : 불기2540년 9월 15일 오후2시
• 장소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 포교원, 문화체육부, 서울특별시, 전국바구니회, 군불교진흥회, 파라미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법회프로그램 안내
1. 식전 행사(13시 20분~14시)
: 비디오상영 · 어린이 풍물패 공연 · 내외빈 입장
2. 법 회 : 「한마음의 인생 살이에는 고(苦)가 없다」
3. 특별공연 : 연주-국립국악 관현악단(지휘 박범훈) · 창-김성녀 · 합창-한마음선원 합창단

교통수단
전철 : 2호선 성내역 하차 ~ 일반 버스 : 212, 성내역에서 셔틀 버스 운행 예정
5호선 올림픽역 하차(2호선 왕십리역에서 마천행 승차)
버스 : 남4문 평화의 문 ~ 일반 버스 : 21-2, 813-2, 좌석버스 : 30 / 남2문 ~ 일반버스 : 21-2, 813-2 좌석버스: 41 / 동2문 ~ 일반버스 : 21-2, 67, 813-2 좌석버스:41

대한불교 조계종
한 마 음 선 원 (禪院)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0343)72-3100 · 1512

사 설

"스님 노후걱정 마세요"

노후복지에 대한 스님들의 걱정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0여년 전에도 스님들의 노후를 위한 복지기금을 마련한다는 명분 아래 조계종 총무원에서 서화전을 열었던 적도 있다. 그러나 모두 말뿐인 일로 끝나고 말았다.

지금도 어느 무료양로원에는 오갈데 없는 노스님들이 일반인들 틈에 끼어 서글프게 생의 마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스님들은 무소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재물을 가져서도 안되며, 욕심을 내면 더욱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스님들의 생활보장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곳에서처럼 따로 생활을 걱정할 필요없이 오로지 수행에만 열중하면 그만이고, 모든 의식주와 의료혜택에 따른 각종 복지종책이 사회적·정치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무소유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1만불의 소득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광배한 자본주의 현실사회에서 무소유로서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이 평생 수행과 포교만을 했다고 한다면 무의탁 수용소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해야 할 출가 스님들이 간혹 종단의 권력과 주지 자리에 기웃거리며, 세속인들 눈에도 볼썽사나운 분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행히 근래들어 스님들의 분규모습이 보이지 않아 불교에 대한 관심이 돋보이고 있으며, 외적으로도 종단의 모습이 안정되어 가는 느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8월27일 조계종 총무원장이 발표한 하반기 종단사업계획의 발표에서 출가 수행자들의 획기적인 노후복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여 모두들 쌍수로 환영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97년 1월부터 40세 이상의 스님을 대상으로 하여 재해나 질병시에 의료비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잘못하다간 1회용으로 끝나지나 않을까 자못 염려스럽기도 하다.

사실 이제까지 출가스님들이 늙고 병들면 연락없던 속가 가족의 신세를 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불교종합병원의 건립은 가장 시급한 급선무라고 본다.

김영삼정부의 대선공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불교종합병원의 건립은 하루빨리 이행되어야 한다.

불교종합병원이 있는 홍콩이나 대만의 자재공덕병원에서는 모든 출가스님은 진찰·입원·요양이 전액 무료다.

태국이나 미얀마보다도 경제적 우위에 있는 우리도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불교병원의 건립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말로만 성사시키는 추진이 아니라 일시에 달려들어 시행한다면 이 병원건립의 문제는 하등에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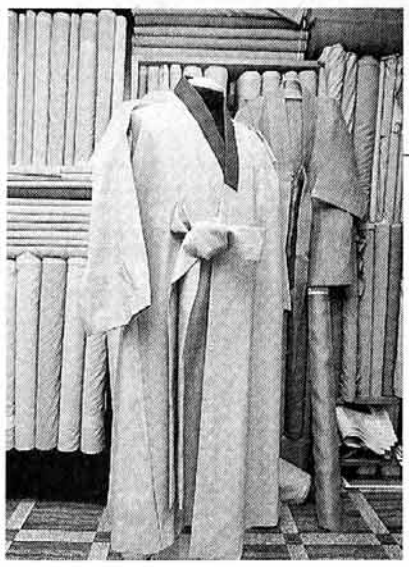
따라서 따히 병원문제 말고라도 스님들의 노후복지는 각 본사마다 노스님들의 처소를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 말사주지의 사자계승 제도를 검토하여 노스님 봉양의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한다.

선학원 문제나 사설사암 등록문제도 결국 노후보장에 대한 불안이 없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리라고 본다.

죽음은 내일의 문제지만 병고와 늙음은 현실적인 오늘의 고통이다. 수행자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하려는 조계종의 복지정책이 꼭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열린마당

의제개혁



◇의제위원회는 사미 복장에 고동색 깃을 착용케 해 비구와 구별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개혁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8월23일 의제위원회(위원장 혜창)는 2차회의를 갖고 사미(니)의 복장에 고동색 깃(동정)을 착용토록해 비구(니)와 구별토록 하고 행자복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동색으로 확정했다. 또한 종사급이상 비구는 대가사와 금란가사를 수하고 비구(니)는 현행 대가사 및 반가사, 사미(니)는 오조가사 및 만의를 수하도록 했으며 가사의 조수등 세부규정은 다음 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의제개혁안은 오는 11월 중앙종회에 의제개혁법(안)을 상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제를 개혁해야 하는 의미와 그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혜창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율장·법의 정신에 입각 승단 법계 재정립 추진"

종단에서는 현재 의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제개혁은 단순히 승복이나 가사를 현대적으로 바꾼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율장이나 청규정신에 입각하여 승가의 의식을 개혁하고 승가가 갖추어야 할 승풍진작에 큰 의미가 있다.

1차적으로 사미(니)와 비구(니)의 승복에 차별화를 두는 것은 개혁법에 사미(니)는 예비승려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제개혁작업은 종헌종법을 준수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이다. 승가가 인천의 사표가 되며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전법도생하기 위해서는 면벽수행이나 화두선만 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승가 나름대로의 위의와 승단질서 확립이라는 굳건한 기초위에 모든 수행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생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과 같다. 이후로 종단은 법계품수와 승가고시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교단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며 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종단을 율사스님을 주축으로 의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료수집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계속적인 의제개혁을 통해 허물어진 승단의 법계를 재정립하고 율장과 법의 정신에 의해 이끌어지는 진정한 화합종단이 되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지명스님 〈청계사 주지〉



"사미·비구 옷구별 '찬성' 예복·평상복도 구분을"

스님들의 의제개혁은 내적인 법계질서와 외적인 사회와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첫째 수행년한이나 법계에 따라서 의복의 형태나 색깔을 다르게 함으로써, 초심 사미승과 비구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또 비구 가운데서도 복장의 차별을 두어 위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사미는 아직 완전한 승려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개혁종단 이전까지는 사미와 비구가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 사미계만 받고서도 승려로서 행세하는데 불편이 없었다. 사미와 비구, 그리고 각 법계가 복장만으로도 구별된다면, 사미승들이 비구계를 받기 전까지 초발심을 늦추지 않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받게 될 것이고, 낮은 법계의 비구들은 더 높은 법계에 오르려고 수행에 몰두하거나, 높은 법계의 선배들을 알아모시게 될 것이다.

둘째 승복이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법당에서는 예식복을 입어야 하고, 잠잘 때는 잠옷을 입으면 족하다. 일할 때는 노무복을, 장터에 갈 때는 평상복 또는 사복을 입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잠옷, 노무복, 사복이 없다. 승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없는 장소에서조차 도포자락을 펄럭거려야 한다. 대중목욕탕에서조차 회색 팬티를 입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승려들에게 과감히 사복을 허용함으로써, 복장에 의해서가 아닌 수행력과 인격에 의해서 스스로 자제하고 존경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철우스님 〈파계사 영산율원장〉



"겉옷으로 수행력 평가 승풍진작에 도움 안돼"

어느 누가 봐도 첫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옷을 입고 위의를 갖춘 비구에게서 우리는 '스님'이라 부르고 존경과 공경을 한다. 검정색 장삼에 먹물 옷 장삼으로 정착 되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렸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 했다.

절집에 전통적 어른 스님네들의 말씀에 '있는 법 없애지 말고 새 법 내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현재 조계종의 의제는 몇 백년 전통과 인습에 확고부동의 위치에 있다. 옷(가사·장삼)을 바꾼다 해서 수행자의 법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본질적 의미에서 불필요한 소모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실례로 행자교육원을 수료하고 사미계를 받은 이들에게 만의가사를 나눠주지만 그 가사를 수하는 사미들의 수는 반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고 보면 비구니계에서 근거없는 청란가사를 수하겠는가? 그 제도에 비구니가 응하겠는가? 사미, 사미니들이 응하겠는가? 법을 만들자 곧 사문화 될 법을 왜 만드는가?

스님의 위상은 옷이나 가사에 있지 않고 스님다운 바른 수행에 있음으로 외형적 모든 것을 저버린 우리 출가본연의 자세에서 점검하더라도 이번 의제개혁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법다우면 말하고 법답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니, 나중에 뉘우침이 없게해야 하느니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모르는척 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노후연금 실시

목어

'새 집' 지으려는 조계종

조계종 총무원이 '새 집'을 지으려 한다. 중앙종무기관의 사무실과 문화시설까지 갖춘 불교종합회관을 건립한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지금의 청사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본부건물로는 협소하다. 낡기도 했다. 그러나 불교종합회관 건립은 그래서 계획된 단순한 '집짓기'가 아니라 21세기를 새롭게 열기위한 뜻깊은 불사라고 생각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봉은사 땅 팔아 조계사 경내에 새로 지은 5층 회관으로 이사한 것은 1975년 가을 11월쯤이다. 그때까지 총무원은 동국대학교 교정에 있었다.

새 집에 들어와 한달쯤 지났을까. 12월24일밤 이상한 사람들이 무전기를 귀에대고 나타났다.

"지금 이 건물안에서 이북과 교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하로 내려가시오."

그날밤 침입자들은 종단개혁을 외치며 종권을 내놓으라고 종정스님을 위협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조계종 해프닝은 이튿날 아침 끝났다.

그날 이후 불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르내렸다. "경봉스님이 그 자리에 회관을 세우면 종단에 바람잘날 없으니 꼭 지으려면 법당보다 낮게 지으라고 하셨다."

그 사건 이후 불교회관에는 쇠창살이 생겼다. 종정 집무실부터 시작하더니 20년이 지나는 동안 층과 층 사이에 쇠문이 설치되고 나중에는 현관문에 두툼한 쇠덧문이 장착되기도 했다.

입열어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사연이 점철된 창살과 쇠덧문은 지난 94년 개혁이후 모두 철거됐다. 그리고 이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새 회관을 건립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새 불교운동에 나선 월주스님의 '발심'이라고 본다. 〈화엄경〉에서는 발심의 이유를 이렇게 설하고 있다. "중생의 괴로움을 길이 없애고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발심한다."

아무쪼록 새로 건립되는 불교종합회관이 이러한 발심의 꽃을 피우는 산실이 되길 기원한다. 더불어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정도로 견고하면서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시대의 명품(회관)이 탄생되길 기대한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이와같이 살라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겨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써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법구경)

협찬 맑고향기롭게모임 회주 법정 Tel.(02)741-4696~7

•소쩍새마을:(0371)762-987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2리 1320 •사회복지법인 승가원:(02)928-0750 •후원자가 되실 분은 승가원으로 전화 주세요.



노랭이 보각스님

'보각'이라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스님은 얼마나 노랭이인지 도반들은 물론 사제들에게도 밥 한 그릇 사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밥을 산다고 해도 극구 사양합니다.
보각스님은 설법 잘하기로도 소문이 나서 전국 곳곳에서 스님에게 법문을 청하는데 벌어들이는(?) 거마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게다가 중앙승가대학 교수 월급도 있습니다.
"스님, 그렇게 돈 모아서 뭘 하실 겁니까?"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면 보각스님은 씩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이내에 소쩍새마을을 3천명이 함께 사는 복지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원을 부처님 앞에서 세웠습니다. 스님 양로원도 지을 겁니다. 도와주세요!"

원장 보각스님은 1984년 지금까지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들에게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스님은 현재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장과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서울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관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에 '노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모은 돈 3억원을 모두 교육과 불사와 우리 이웃에게 회향했습니다. 보각스님의 발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셔틀버스 운행 안내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조계사에서 소쩍새마을까지 버스를 매일 운행합니다. (월요일 제외)

- 오전 7시30분:조계사 입구 출발.
- 오전 8시10분:동서울 터미널 옆 우성아파트 101동 후문 앞 마을버스 정류소 경유.
- 오후 3시 정각:소쩍새마을 출발 (토·일요일은 2시)
- 오후 5시30분:안암동 중앙승가대학 도착.

복지불사 근본도량 - 소쩍새마을

"21세기 불교중흥 틀 다지기"

조계종 총무원 하반기 중점사업발표 의미

지난 8월27일 월주스님이 발표한 조계종 총무원 하반기 중점사업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출가수행자의 노후복지 대책이다. 총무원에 따르면 종합적인 승려복지제도의 첫걸음으로 97년부터 세납 40세이상의 스님들에게 재해, 질병시 의료비제공과 사고후의 보장은 물론 노후시 연금까지 지급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도는 그동안 개인 또는 일부 사찰에서 부분적으로 승려노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모든 출가수행자가 노후에 대한 고민없이 마음놓고 수행과 교화에 정진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있다.

현재 40세이상 조계종소속 스님은 3천명으로 추산된다. 이가운데 연금혜택(60세부터)을 받을수 있는 40-59세 스님은 1천9백여명. 이들 스님들의 보험료를 종단에서 전액부담하게된다.

이를위해 총무원은 내년 종단예산에 승려노후복지비 15억원을 책정하고 출가수행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험회사와 새로운 상품개발을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비 제공·새 청사 마련등 '수행전념 풍토' 조성

또한 총무원은 최초 몇년간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보험회사와 연계해 시행하고 3-4년후에는 독자적인 의료보험 조합과 자체 공조회를 결성해 재정활용을 극대화 한다는 복안도 세우고 있다.

한편 불교종합회관(조계종 청사)건립도 총무원 숙원사업의 하나이다. 금년에 처음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총무원은 조계사부근 부지매입이 원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3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불교회관건립을 추진, 98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총무원은 빠르면 9월중으로 불교종합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월주스님은 "불교회관 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젼 등 교계 유관기관도 들어설수 있도록 설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불교언론 통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월주스님은 이밖에 타당성 검토를 거친후 중앙분담금의 30%범위에서 각 교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교구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중앙승가대학 이전불사추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이 밝힌 하반기 사업계획은 추가로 50억원의 일반회계 세출이 발생하게 되어 재정마련이 관건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총무원은 4.8봉축행사등 중요한 행사이외의 행사는 폐지하거나 종단 산하법인이나 단체에 이양하고 각종 행사지원·보조·행사비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준엽 기자

"한발씩 서로 양보 한뿌리 결속 확인"

조계종-선학원 '전격화해' 배경과 전망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던 조계종과 선학원이 지난 8월27일 양측의 최고책임자와 실무자들이 전격적으로 회동함에 따라 일단 분종위기는 넘기게 됐다.

그동안 평행선을 그어오던 양측이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이날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어느 쪽도 분종에 대한 종도들의 비난을 감당할수 없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물밑에서 나돌던 조계종과 선학원의 분종위기는 지난 8월31일부터 시작된 제11기 행자교육원에 선학원소속 행자가 제외되자 선학원도 자체 교육원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돌출되었다. 막다른 길목에서 양측이 선택할 유일한 방안은 '조건없는 만남'이었던 것이다.

종헌·정관 개정여부 관심

이날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서로가 역사적으로 한뿌리임을 확인하고 향후 현안문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협의기구가 풀어야 할 현안문제는 조계종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정관에 조계종지 봉대 삽입'으로 요약할 수있다.

이 문제는 선학원측이 재단 내부규정에 "재단의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일단 피해갔으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일 수밖에 없다. 선학원에는 조계종뿐아니라 다른종단 소속 사찰이 소속되어있기 때문이다.

조계종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계종은 그동안 "...법인을 설립했을때는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는 종헌(9조3항)에 의거해 사설사암과 종단산하 법인체에 규제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선학원만 예외로 할 수 없다는 부담이다.

그러나 화해분위기가 조성된 마당에 각자의 자존심(?) 때문에 또다시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종도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엽〉

해인골프장 반대 '유네스코 진정서' 왜 내나

대장경 주변환경 '인류 관심사'

'위험 처한 유산목록' 등록…국·내외 여론 환기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해인총림 대책위가 팔만대장경을 유네스코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등록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하고 종국에 가서는 골프장 건설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도 정기국회에 거론할 것으로 보여 해인골프장은 환경보호와 문화재보호라는 측면에서 한동안 태풍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협약 제11조 4항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규모 개인.공공개발로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문화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재산'이 그것으로 이에따라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소장되어 있는 가야산에 해인골프장은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공사가 재개될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에 안정적 보존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팔만대장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만 신청했지 문화유산보호 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소극적정책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따라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은 어떠한 개발도 제한되며 주변환경보호가 기본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야산에 골프장이 추진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대 명예교수 이태녕박사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장경각안의 표면온도가 2도이상 차이가 나지않는 통풍구조로 자연의 요소와 일치돼 7백여년동안 보존될 수 있었다"며 "주변의 모든 자연적 부분이 훼손되면 팔만대장경이 위험하다고 밝혔다.

해인골프장 건설건은 문화재 및 환경보호, 정부의 환경정책 부재등 다양한 문제들을 드러내며 한국환경운동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원우기자

재건-총무원 관계개선 '미지수'

전국신도회 회장선출 그후…

전국신도회가 박완일씨를 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일단 구심점을 확보하고 '40년 법통'의 전신회 복구에 나섰지만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조계종 총무원이 주요종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신도회 구성에 전국신도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가 될 경우 총무원으로부터의 견제를 버텨낼 수 있는지는 것이다.

총무원과 중앙신도회 준비위는 박완일씨의 회장선출과 관련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종헌·종법상 조계종의 유일한 신도조직은 중앙신도회임을 부각시키며 전신회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월주 총무원장도 박완일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주 만나 상의하자"는 원칙만을 피력했다. 이는 지난 6월 종회에서 '전신회 지분 인정, 중앙신도회 합류'를 제안했지만 전국신도회가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총무원장의 제안을 거부한데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구태 척결 과제…중앙신도회 구성 재촉할수도

그러나 일부에서는 박완일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총무원과의 대화채널을 만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완일회장도 선출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무원 구상에 전신회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스님들의 오해가 없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신도회가 조계종 총무원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신회는 이와함께 구시대 색채를 어떻게 탈색시키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신회 대의원 일부에서는 선출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박완일씨도 구시대인물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전신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편 전국신도회의 본격적인 조직정비작업이 중앙신도회 창립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신도조직이 전신회의 구심력에 빨려들어갈 것을 우려해 창립작업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정성운 기자

시론

우리도 성숙한 백성되자

지난 해 11월 전직 두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지난 8월26일 판결이 끝날 때까지 국내외의 관심은 매우 지대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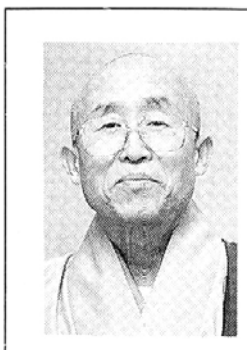
그간 거의 매일같이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혹은 구전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은 이 사안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두 전직대통령 중형선고

세상을 떠나 출가수도하는 몸으로서 세상사에 무엇을 안다고 이 문제를 거론하려마는 나 또한 이 땅에 나는 수초를 먹고 사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여기에 소감의 일단을 피력한다.

나의 소감이란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다.

이번의 판결이 물론 재심 삼심이 남았지만 이 판결을 놓고 형량이 적정하다, 지나치다, 미흡하다 등 갖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월 운
〈스님·동국대역경원장〉

이러한 견해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소신에 따른 것이어서 탓할 바는 아니다. 탓할 바 아닐뿐 아니라 당당하게 갖가지 의견을 소신껏 표출하여 민족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의견이 법치주의제도 안에서 법답게 여과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골을 파면서 살아야하는 가공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연루자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할 것이 아니라 잘 하려던 것이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분을 받겠다는 겸허한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요,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이 일이 비록 가려져서 굴절된 국민감정을 바로잡는 불사일뿐 감정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하리라 본다.

사람이 사는 곳에 어찌 잘못이 없을 수 있겠는가. 단 그 잘못이 애초에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우발적인 실수였는가. 또는 그 잘못을 시인하는가 아니면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가의 차이가 있을뿐이다.

법은 이 점을 두루 가려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하고 국민은 그 판결을 믿고 따를 때 "우리도 성숙한 백성들이다"고 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불행한 일인가, 다행한 일인가.

나는 이 일은 필연적인 일이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왜냐? 부처님 말씀에 "인과의 법칙을 믿으라"하신 것이 자주 보인다. 이 인과의 법칙으로 보아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별업(別業)을 지었고 국민은 국민대로 공업(共業)을 지은 것이 오늘의 현상으로 터져나온 것이기에 말이다. 다시 말해 그럴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행인가. 큰 역설같지만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살 되지 않을 고름을 두고두고 앓는 것보다는 쭉 째고 수술을 받게 되었으니 다행이 아닌가 하는 말이다.

지난날 병이나도 병원엘 갈 수 없었던 시절보다는 오늘날 병이 나면 필요에 따라 쭉쭉 째고 수술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제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고 할 만치 민도가 높아졌으니 그 또한 얼마나 다행인가.

지난날에도 무리하게 정권을 빼앗거나 남의 나라를 유린하는 등의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때는 그럴만한 민중적인 안목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백년이 되는 오늘까지 미결수로서 명부에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 죄가 있다면 죄값을 깨끗이 받고 넘어 갈 수 있음이 또한 당사자들을 위해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잘못된 자를 질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하고, 자기의 무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옳은 충고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비온뒤에 굳어지는 땅

그 이유는 우리는 한 핏줄이기 때문이다. 핏줄이 아닌 남남끼리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했는데 한 핏줄 사이에 필요이상의 미움이 지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위 시작된 법적인 검증을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명하게 한점의 의혹없이 빨리 끝낸 뒤, 서로가 그 판결에 깨끗이 승복하고 다시 한 핏줄로 돌아가 함께 정업(淨業)을 닦는 일에 매진한다면 그야 말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나는 이제 향 한 개피 피워놓고 오늘의 판단이 먼훗날의 사가들도 공감하는 내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

1. 대 회 명

「韓·中·日 佛敎友好交流會議 서울大會」

2. 대 회 주 제

「21世紀에 있어서의 韓·中·日 佛敎의 使命」

3. 일 시

1996년 9월 9일 ~ 12일(3박4일)

4. 장 소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 ☎(02)453-0121

5. 개 요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불교계를 대표하는 각 종단 고승대덕 최고지도자들이 모여 과거 삼국 불교 우호교류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21세기에 있어서의 삼국 불교의 사명을 모색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난민구제, 환경보호, 학술, 문화, 정보교류 등 제반 실천사항을 가지고 삼국불교 각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에 따른 논의와 결정을 하는 3국 불교계 최고 대표 회의입니다.
본 대회는 국제 회의와 문화행사 형태로 진행됩니다.

6. 취 지

오랜 역사를 이어 오면서 우리 민족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과거 한·중·일 삼국간의 교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빈번했던 분야는 문화 교류였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고승들의 구도 행각과 포교, 사상 교류와 전파, 불경과 문물 등 불교의 인적, 물적 교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불교의 우수한 문화와 제도 등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라 원효 등 헤아릴 수 없는 고승대덕들이 수많은 저술을 통해 중국과 일본 불교에 사상적 영향을 미치는 등 상호 교환적이며 보완적인 우호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삼국 불교계의 오랜 우호적 교류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삼국 불교계는 95년 5월 중국 북경에서 1차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1차대회시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쉬환 주석의 만찬,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예방, 개·폐회식에서의 중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참석, 중국·일본 각계 유명 인사들의 축전등은 앞으로 삼국 불교계" 유대와 우호교류의 앞날을 밝게 해주는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었습니다.
이번 2차 대회에서도 한·중·일 불교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삼국 유력 종단의 총무원장, 중진대덕 각 단체장 등 실질적 최고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21세기에 있어서의 불교의 역할과 사명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하고, 인류의 구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여 이에 수반되는 사업인 난민구제, 지구촌 환경보존,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위한 기구설치 등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문화 질서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7. 대 회 일 정

일자및시간	행 사 내 용	장 소	비 고
9월 9일			
12:00-15:00	중국, 일본대표단 입국	김포공항	400여명
15:00-16:00	대표단 등록	쉐라톤워커힐호텔	회의장
16:00-17:00	3국불교 준비위 실무회의	소회의실	30명
18:00-20:00	대표단 환영만찬	쎈플라워 룸	200여명
9월10일			
10:00 ~ 10:30	개회식-축하예술공연	무궁화그랜드룸	1,000명
12:00-14:00	오찬-문체부장관 주재	쎈플라워 룸	
14:00-18:00	기조연설-한.중.일 대표 보충연설-각국 2명씩	무궁화그랜드룸	
18:00-20:00	대회환영만찬 (한.중.일 참관단 전원 참석)	무궁화그랜드룸	1,000명
9월11일			
10:00-12:00	세계평화기원법회 (영산대재 형식으로 진행)	동국대 운동장	2,000명
12:00-14:00	오찬-동국대 총장 주재	동대 학술문화관	대표단
14:00-16:00	회의(보충연설) 각국1명씩	무궁화그랜드룸	
16:00-18:00	폐회식(선언문 채택)	무궁화그랜드룸	800명
9월12일			
10:00-12:00	불교문화대제전 참관	여의도 행사장	중국대표단은 13일 출국
13:00-16:00	일본 대표단 출국		

문 의 전 화 : 732-4885

불기 2540년 8월 일

한 국 불 교 종 단 협 의 회 회 장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서울대회장 송 월 주

법회 안내

호압사(02)803-4779

초하루법회 매월 1 · 3일(음) 오전10시30분
약사재일 8일(음) 오전10시30분
인등법회 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금화사(051)582-3042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불교학교 매주 일 오전10시
중 · 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도사(0431)54-0394

정기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지장암(042)221-6208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입제 오전11시
매월 3일(음) 회향 오전11시
문수보현기도 매월4일(음) 오전11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참길청년회법회 매주 화 오후7시30분

정암사(0398)591-6925

일반신도 백상회법회
매월 1 · 15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월 1 · 3주 금 오후7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30분

삼화사(0391)43-2985

통합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강릉명주 거사림회
매월 셋째주 토 오후5시
관음사 불교청년회 화 오후7시
강릉불교청년회 매주 목 오후7시
대학생불교연합회 수 오후6시
불무리회 매주 토 오후6시
고불학생회 매주 토 오후2시
여교사불심회 매월 1일 오후7시
신중기도 매월1~3일 오전10시

관음포교원(051)517-8482

산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중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주부경전교실 매주 금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내원정사(051)242-0691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약수사(051)555-4332

인등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조상천도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조계종 월하종정 하안거해제 법문



靑春非物難爲市　젊음은 시장에서 살 수 없고
白髮何根不敢鋤　머리의 백발은 뽑을 수 없도다.

去國一身輕似葉　몸은 가볍기가 낙엽같으며
高名千古重似山　천고에 명성은 산과 같으니
稱吾無行飛知見　깨친 뒤 무행이면 알음알이요
知見非吾是口禪　머리속 알음알이 구두선이라.

口禪何敢破生死　구두선으로 생사를 없앨수 있는가
能破生死在正念　생사를 파 함은 정념 뿐이라
自佛自覺自證時　마음속 부처를 증득한 뒤에야
退魔宮中大道師　훤훤한 대도사 되리라.

若向身外求他身　자기몸 밖에서 따로 구하면
聖路虛玄逢不見　성인의 길은 멀고 멀지니
影入長江去不去　장강에 그림자 가도 같이 아니오
物外靑山來不來　청산 밖 한 물건 와도 옴이 아니다.

安禪不必須山水　참선에 산수가 필요치 않으니
滅却心頭火自凉　마음만 편하면 불도 시원 하리라
深海底行不濕脚　바닷속에 있어도 젖지 않으며
高峰頂立不露頂　뫼뿌리 끝에서도 드러나지 않도다.



봉은사 생명해방 대축제 봉행

강남 삼성동 봉은사(주지 무상)는 지난 8월 28일 우란분절(백중)을 맞아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을 비롯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생명해방대축제'를 봉행했다.

유주무주고혼을 천도하는 전통불교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생명해방대축제에는 천도의식을 비롯 바라춤, 풍물패의 마당놀이가 펼쳐졌다.



올림픽 유도메달리스트 '명예경찰'

조민선, 전기영, 정성숙씨 등 애틀랜타 올림픽 유도메달리스트 불자선수들이 지난 8월 28일 경찰청 명예경찰관에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경찰청무도사범으로서 각종 무도대회 고문역할과 무술지도를 맡게된다.

특히 여자 61kg급 동메달리스트인 정성숙씨는 경찰근무를 희망해 경찰관으로 특채됐다.

교차로

동대 교직원 신행교육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은 지난 8월 23일과 24일 2백 여 명의 동국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신행 실수교육을 실시했다.

'한글지장기도 예식집' 펴내



도문 대각사 주지는 지난 8월15일 회심곡, 왕생가, 관음시식등이 수록된 한글지장기도법회예식집을 펴냈다.

투병 법종스님 돕기 모금



법장 (사)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스님은 지난 8월 28일 백중을 맞아 봉은사에서 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법종스님(보덕암 주지)을 돕기위한 모금행사를 벌였다.

'통일기반 조성…' 세미나

법혜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스님은 4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종교계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리비아 정부 초청 방문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스님과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은 리비아정부의 초청으로 동아건설의 리비아대수로 2단계사업의 통수식과 현대식 트리폴리 종합병원 준공식 및 리비아 혁명기념일 행사 참석차 지난 8월27일 출국, 9월3일 귀국했다.

청소년 어울마당 열어



보각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관장스님은 오는 7일 오후5시 송파구내 아시아공원에서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한다. (02)421-6077

'북한동포 돕기' 모금 법회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조계종 문화사회부장)는 오는 6일 오후1시 포교당에서 '북한동포에 자비의 손길을' 모금법회를 봉행한다.

북한불교 사진전 열어

백운 평불협 강원본부회장 스님(석왕사 주지)은 지난 8월 29~31일 법타스님 초청강연회 및 북한불교 사진전을 개최했다.

노인 3백명 초청잔치

무화 대도사 주지는 지난 8월28일 대도사에서 청원군 가덕면 관내 노인 3백여명을 초청, 경노잔치를 개최했다.

법인인가 자축 이사회

박광서 우리는선우 이사장은 오는 5일 오후6시 서울 조현동 한식당 해림에서 사단법인 인가 자축 및 하반기 사업계획 점검을 위한 확대이사회를 개최한다.



전국신도회 회장 수락 박완일 씨



전국신도회 7인 활성화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경주 코레스코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수련대회에서 박완일씨를 제1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씨는 지난 8월 27일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회장선출 수락의 사와 전신회 운영방향을 밝혔다.

박회장은 먼저 미리 준비한 메모를 토대로 회장 수락까지의 과정을 털어놓았다.

"작은실천 중시 40년 법통이어야죠"

"나를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사실을 경주 현지에서 알았고, 정말 뜻밖이어서 수락을 망설였다. 그러나 신도회 초창기부터 사무총장과 회장직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신도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어 조계종총무원이 추진중인 중앙신도회 결성을 의식한 듯 "총무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고 개혁종단 출범 이후 중앙신도회 창립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런면서도 전국신도회의 법통을 강조, 중앙신도회와는 별도로 전국신도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전국신도회는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오늘의 교단을 성립하는데 크게 공헌하며 40년의 법통을 이어왔다. 어떤 형태로든지 불교에 유익을 주고 종단발전에 기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총무원이 추진하는 구상에 전국신도회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에대해 스님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신도회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소박하게 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하는 모범적인 신행운동을 펼칠 것이다"는 말로 대신했다.

▲박완일회장 약력
1935년 광주 출생. 동국대 불교학과, 동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81~92년 전국신도회 14~16대 회장. 방송심의위원, 민정당 은평을지구당 위원장, 13 · 14대 국회의원 출마. 현한국사회교육원장에 재임중이다.

정성운 기자

LA 한미불방 유 인 무 제작위원



"24시간 내내 하는 기독교 한인방송이 있는데 비해 우리 불교방송은 매주 2시간 정도 밖에 내보내지 못해 안타깝지만 차차 늘여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초파일부터 50만 재미교포들을 대상으로 불음을 내보내고 있는 미국의 또하나의 불교방송인 '한미불교방송'의 유인무 제작위원(57)이 방송자료 수집차 지난 8월23일 귀국했다. 미국 LA에 있는 '한미불교방송'은 매주 토요일 저녁 9시40분~11시 30분 FM 서울방송 채널을 통해 불교계소식 불교교리강좌 고승열전 명상의등불등의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아나운서 출신인 유위원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룸비니동산의 대화' 코너도 진행하는데 호응이 좋다고 전한다. 유위원은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즐겨 듣는 방송포교의 선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숙〉

"재미교포 정법홍포에 최선"

석왕사 효녀상 수상 경련수씨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될 일을 했을뿐 입니다. 이 상은 부모님을 잘 봉양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우란분절을 맞아 개최된 석왕사 효자효부상 시상식에서 효녀상을 수상한 경련수씨(65,부천시 소사구). 경씨는 10년전부터 친정어머니(95)와 외손자까지 돌보면서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2년전부터는 어머님의 치매가 심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지만 경씨는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라며 오히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측은하게 여길 정도로 효심이 극진하다.

힘들고 어려울때 절에 다녀오면 속이 시원하다는 경씨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편안히 모시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어머님을 편안히 모시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근〉

"자식된 도리 했을 뿐인데…"

게시판

▲아함경 특강=원각사(주지 법현)는 오는 8일부터 4개월과정의 아함경특강을 실시한다. 강의는 매주 일요일 오후2시며 교육비는 무료. (02)763-5214

▲우리문화기행단 및 불교입문반 모집=부산불교교육원(지도법사 성재도)은 오는 8일 오전8시 경남 산청 대원사, 덕천서원, 목화시배지 등지로 문화기행을 떠난다. 또 6개월 과정의 불교입문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내용은 불교기초교리, 사찰예절, 구도순례, 참선방법, 산사에서의 1박2일 수련회 등. (051)466-4080

▲원왕생 교육=불교문화센터는 오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4시~6시 불교식장례에 관한 이론 · 실습교육인 원왕생교육을 실시한다. (02)703-0108

▲마하반야바라밀 강좌=(사)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은 오는 7일까지 연구원 법당에서 '마하반야바라밀'을 주제로 한 불교기초강좌를 연다. 강좌는 매일 오전10시30분부터며 수강료는 무료다. (02)3411-6167

▲원효사상연구 강좌=원효사상연구소(소장 심재열)가 지난 1일부터 원효스님의 저서인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와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에 대한 연구강좌를 열었다. 대승기신론은 매주 토요일 오후3시부터, 십문화쟁론은 6시부터 각각 2시간씩 1년과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02)3672-9097

▲청보리자원봉사단 모집=삼전종합사회복지관 중고등학생 봉사자들의 모임체인 청보리봉사단이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청보리봉사단은 탁구장 봉사, 프로그램홍보 및 보조, 청소봉사, 지역홍보활동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02)421-6077

▲불교대학교육생 모집=금화사(주지 대안)는 불교대학 제12 · 13 · 14기 및 연구반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051)582-3042

▲교양강좌=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증실)은 9월을 맞아 스텐실, 생활도예교실, 양재교실, 간병인교육, 홈패션 등 다양한 교양강좌를 마련했다. (042)633-1141

이전 (사)한국차생활문화원(원장 감승희)이 서울 성북구 성북2동 330-508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2-9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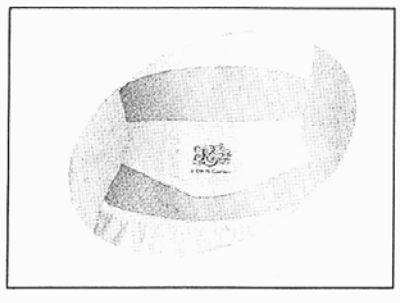
화촉 정웅기 불교신문기자는 오는 7일 토요일 오전11시 신촌 거구장에서 홍경희씨(전 열린불교 근무)와 화촉을 밝힌다. (02)733-1604

부음 김태중씨(전 조계종 교육원 교육과장)이 지난 8월27일 지병으로 타계했다. 김씨는 지난 75년 총무원 입사, 20여년간 교무부 교무과장, 교육원 교육과장을 역임하면서 종무원으로 평생을 바쳐왔다. 김태중씨의 유해는 29일 화장의식을 가진뒤 관촉사에 안치됐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경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학인모집공고

-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

한국불교의 강학전통을 계승하고 승가대학(강원)과 학림의 전문교수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가대학원을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학인모집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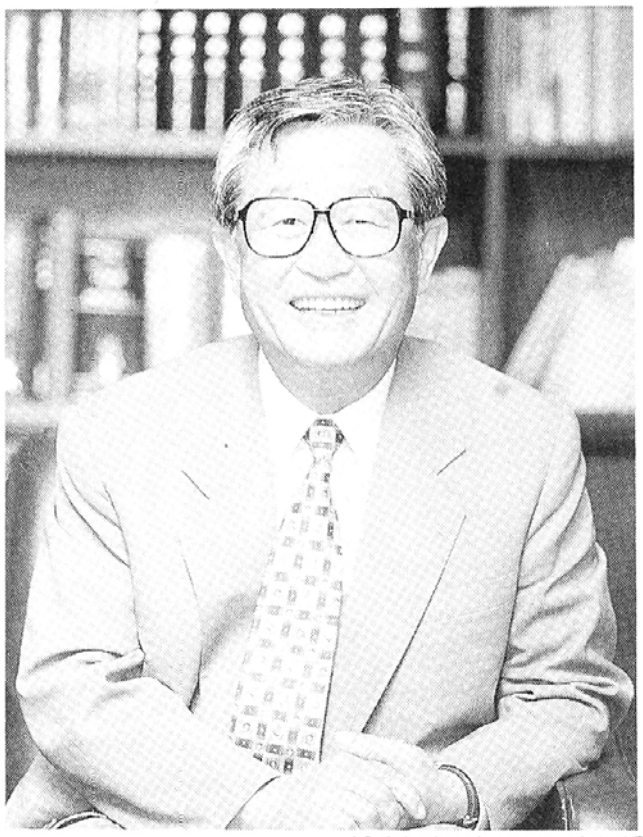
1. 모집인원 : 20명 내외
2. 모집기간 : 불기 2540년 9월 2일 - 9월 21일
3. 응시자격 : 승납 10년 이상인 조계종 비구승려로 종헌 제9조 3항의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써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자
   가) 강원 사집과목 중강 경력 2년 이상자
   나) 불교학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다) 강원과 동국대 또는 강원과 중앙승가대학의 두 교육기관을 모두 졸업한 자
4. 제출서류 : 가) 본 승가대학원 소정 응시원서 1부
   나) 승적증명서 1부
   다) 최종학력 증명서(승가학력)1부
   라) 경력 증명서 1부
   마) 사진(반명함판) 3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6. 전형일자 및 장소 : 불기 2540년 9월 23일 오전 10시 교육원 회의실
7.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8. 개 강 : 불기 2540년 10월 7일
9. 교육기간 : 3년
10. 교육장소 :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11. 원서 접수 및 문의 : 우) 110-170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전화) 02)732-4923~4
12. 기 타 : 가) 본교육기관 졸업자는 승가대학(강원)과 학림의 교수자격을 부여함
    나) 교과목은 사교, 대교, 수의과목과 그외 보완과목
    다) 교수는 종단의 강백스님(전통적인 강의)과 관련과목 전공교수(특강)
    라) 연구비 지급

대한불교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

"인간중심 경영 기업성공 열쇠"

산문밖의 禪

(주)삼일사 홍영춘 대표이사



'유리하다고 교만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주〉삼일사의 대표이사 홍영춘씨는 매일 출근길에 〈잡보장경〉에 있는 '걸림없이 살 줄 알라'라는 부처님 법문을 되새기는 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불자기업인이다.

30여년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의외의 길인 오일세일즈에 입문하여 28년간 오일맨으로 살아온 홍영춘씨는 불교학과 출신으로는 드물게 기업가로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의 불교 인연은 매우 자연스러웠다. 부친이 지난해 입적한 불교학자 홍정식 박사였으므로 온 집안이 불교일색이었던 것이다.

"뛰고 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불자로서 더러운 것 깨끗한 것 가리지 않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도맡아서 했지요. 오직 생활 현장을 선방으로 여기고 치열하게 정진해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때는 나 자신하고의 싸움을 해야하는 경우지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면 결과는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죠."

80년초 진급을 거듭할 당시는 유공이 미국 걸프사와 합작회사였는데 미국인 사장이 서류에 적혀있는 출신학과인 불교학과에 물음표(?)를 찍어 내려보낸 적도 있었다고 한다. 경쟁과 경쟁 속에서 '세속적인 줄도 선배도 없다'며 괴로움에 자책할 때마다 부인인 김성희보살은 '당신뒤에는 든든한 부처님이 계신다'며 위로했다고. 순간순간의 행로에 마가 찾아오면 더욱 더 자신의 마음공부에 치중한 홍영춘씨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뒤돌아보지 않고 정면으로 극복했다. 오직 그에게는 눈 돌릴 수 없는 한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씨의 화두는 '집착함이 없는 마음과 무욕의 정신을 생활화하자'는 것. 화두라기 보다는 좌우명 같지만 실천의지를 곧추 세운채 살아가기가 힘든 만큼 평생 풀어야 할 과제이긴 마찬가지라는 것이 홍씨의 설명이다.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불자로서 느끼는 갈등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상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와주는 것이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외상채권 회수를 서두르는등 반대급부적 일을 해야할 때가 가장 괴롭다"는 심정을 밝힌다.

1천8백7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일터이자 삶터인 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윤의 극대화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럴때마다 창문너머로 보이는 봉은사를 홀연히 찾아 부처님을 뵙고 답답한 마음을 정리한다. 그래서 그는 봉은사와 함께있는 것만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사람과 연결되는 문제가 생겼을때는 사람이 해결해야죠. 경영현장에서 이것이 우주의 법칙중 끊을 수없는 도리임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유류업계의 제1인자로 부상한 홍영춘씨의 경영철학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간위주의 실천경영이다.

"결국 회사의 흥망성쇠는 사람들의 인지도가 좌우합니다. 자동차 한 대에서 큰 공장에 이르기까지 신속 정확하게 신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유공의 판매회사인 삼일사는 서울 강원 경기지역을 판매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고객의 편익시설을 마련하는등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주는 방향

힘들때마다 '자신과 싸움'으로 극복
환경보존 주유소 시설변경 추진
1천8백여 직원 삶터 보장 '최선'
"집착없는 무욕의 정신 갖자" 다짐

의 인적서비스를 실시중이다.

또 판매직원을 연수원에서 일정기간 연수시키고 서비스 활동 홍보조인 '아톰조'를 가동시키기도 한다. 이와함께 가출 청소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주유원 채용도 부모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인간생활과 하나되는 환경보존에 입각한 주유소의 시설 변경에 관심쏟는 것도 그의 인본주의가 마련한 장치다.

"사람은 내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남의 권리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질서속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자기는 완벽하고 남은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갈등과 불만이 쌓이게 된다는 그는 최근 유류업계에 불어오는 과당경쟁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내부비용 절감과 기구개편 경영개선 활동에 불만이 싹튼 직원들이 지난 6월 노사분규를 일으키는등 심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직원들이 사옥에 신나를 뿌리며 데모하고 유조차에 불을 지르는 계획과 건물옥상에서 분신까지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 올때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의 상황을 다 펴놓고 얘기 할 수도 없고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홍영춘씨는 직원들과 직접 만났다. 그가 내놓은 말은 단순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면 내스스로 구업을 짓는 것이다. 믿어달라." 결국 직원들은 그를 신뢰했다. 어쩌면 그의 불심을 믿어준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의 운영이 자기의 마음과 능력보다는 부처님이 외호해 주기 때문에 별 탈없이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출장을 가는 길에도 절이 눈에 띄면 빼지않고 법당에 들러 참배한다. "사찰이 있으면 부처님께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회사 야유회때도 직원들에게 인류의 성인인 부처님께 참배할 것을 권유한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절은 하는 사람의 업장을 녹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찰에 가기를 좋아하는 그의 기질은 군생활을 하며 휴가를 받으면 월정사로 가서 생활하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귀대했을 정도였다.

결혼해서 처음에는 절에가도 법당에 들어가지 않는 무종교인이었던 부인이 지금은 한마음선원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그가 비지니스관계로 법회에 빠질라치면 가장 큰 질책을 가하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

"하루하루 마음을 주인공에게 맡기 기도하고 내자신이 주인공이돼 역할도 해보고 그럽니다."

매일아침 6시면 기상하여 반야심경을 염송하며 마음을 바로잡는 산책과 저녁참회는 매일 반복되는 그의 신행생활 일부이기도 하다. 그것은 "나부터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다. 또 매달 1회씩 한마음선원에 나가 대행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도 그의 마음공부하는 일환이다.

홍영춘씨는 이제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있다. 얼마남지 않는 정년 후 자신이 가야할 길을 닦고 있다. 그는 아버님의 염원이었던 불교계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이제는 술한 수행의 길을 회향하고 끊임없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원우 기자

명당에 조상묘를 쓰고 싶은데…

문 사람이 죽으면 49일을 지나 전생의 업에 따라 육도윤회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사후에 혼이 셋이라서 자기 무덤과 살던 집에 각각 남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후손들이 조상 묘를 잘못 이장하면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상 무덤을 옮겨야 하는데 좋은 자리잡아 가족장을 해도 되는지요?

〈김중천 · 경남 진해시 용원동〉

답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사대로 흩어져 원점으로 돌아가고 업식만 남게 됩니다. 그걸 흔히 영, 영식 또는 영혼이라고 하는데 물론 불성과는 다릅니다.

아무튼 이 업식은 몸을 지녔던 인연으로해서 여전히 몸이 있는줄 아는 경우가 많고 생전에 살았던 마음자리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나면 빠져죽을까 걱정하고 불을 만나면 타 죽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죽어서 육도윤회에 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생전의 마음자리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까 악업, 선업 지은 것이 그립자처럼 확대되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로 생전에 독사같은 마음을 먹었다면 독사굴이 제집인줄 알고 찾아들게 되는등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해 삼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후에 혼이 셋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려면 부모의 정혈을 받아 육신을 만들고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받고 업식이 합쳐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합해져야 하는 걸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죽어도 생전 의식대로 가족에 집착하고 살던 곳에 집착을 하는 바람에 간혹 말로 설명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과를 말하는 것도 다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녹이는 도리가 있다는 것을 필히 아셔야 합니다.

마음을 무시하고 귀신이 있다, 영혼이 어떻다 한다면 그것도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귀신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게 됩니다.

조상의 묘자리를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는 명당이고 어디는 흉지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그러하니 조상마음도 그럴 것이고 따라서 그 땅은 나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상의 묘자리를 잡거나 이장을 하는 경우에 음습한 땅을 피해 양지바른 곳을 고르면 그로써 명당이지 명당이 따로있는 게 아닙니다. 후손들이 보기에 이만하면 조상을 모실터로 손색이 없겠다 하고 생각했으면 그대로 명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입니다. 내마음이 지극하면 조상마음도 감응하게 됩니다. 마음을 떠나 방편에 집착하신다면 조상의 업식에도 생전의 좋고 나쁨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시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마음도리에서는 자유로운 해탈의 길을 증득하자는 것이지 그따위 어쥽지않은 능력을 추구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는 누구나 신통 몇가지 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만 돌리면 즉시 지구 반대쪽이라도 통신이 되고 괙스가 오가고 안방에 앉아서 올림픽 경기를 다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몇만 광년 밖의 우주도 내다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누가 좀 아는 듯한 소리를 했다고 거기에 현혹된다면 어찌 자신을 만물의 영장입네 하겠습니까?

예언도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게 참나도 쉬지 않고 바삐 움직이는데,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데 어디 정해놓은게 있어서 미리 알아 맞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시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다가도 싫으면 그만 두는데 그게 다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요는 마음먹기에 달렸으므로 팔자운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리는 광대무변해서 비록 인과의 법칙은 있을지언정 딱 정해진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이 있는 것처럼 물으셨는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 또한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을 말하는 것은 대상으로서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의 근본자리를 이름입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리는데도 주인공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영원한 생명, 내가 마음 내는 것, 움직이는 도리를 뭉뚱그려 붙인 이름입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神과 주인공은 어떻게 다른지요

문 요즈음 전생을 안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책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무속인들의 신내림과 스님이 말씀하시는 주인공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하월수 · 경주시 황성동〉

답 우선 말씀드릴 것은 미래를 본다거나 전생을 읽는다 또는 예언을 한다는 따위는 다 소인들의 짓임을 아셔야 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가겠지만 부처님 말씀인즉, 분명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마음도리에서는 자유로운 해탈의 길을 증득하자는 것이지 그따위 어쥽지않은 능력을 추구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는 누구나 신통 몇가지 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만 돌리면 즉시 지구 반대쪽이라도 통신이 되고 괙스가 오가고 안방에 앉아서 올림픽 경기를 다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몇만 광년 밖의 우주도 내다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누가 좀 아는 듯한 소리를 했다고 거기에 현혹된다면 어찌 자신을 만물의 영장입네 하겠습니까?

예언도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게 참나도 쉬지 않고 바삐 움직이는데,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데 어디 정해놓은게 있어서 미리 알아 맞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시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다가도 싫으면 그만 두는데 그게 다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요는 마음먹기에 달렸으므로 팔자운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리는 광대무변해서 비록 인과의 법칙은 있을지언정 딱 정해진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이 있는 것처럼 물으셨는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 또한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을 말하는 것은 대상으로서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의 근본자리를 이름입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리는데도 주인공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영원한 생명, 내가 마음 내는 것, 움직이는 도리를 뭉뚱그려 붙인 이름입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가정용 전통 쑥 좌욕기 "탄 생"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냉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 성 부인병, 냉 · 대하, 변비,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통, 산후조리, 출수축작용, 염증 및 염력수축촉진 배가 냉한사람, 설사가 심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 · 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 · 가슴 근살제거, 갱년기장애 등

남 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성력감퇴, 발기부진, 변비, 잔뇨, 소변곤란, 비뇨통 등



★ 얼굴 피부가 거친분, 여드름 기미가 많은 분은 얼굴을 좌대위에 놓고 법정하십시오. 피부가 윤택해지고 여드름, 기미가 제거됩니다.
★ 팔, 다리에 선경통, 관절염, 마비증상이 있는 분은 아픈부위를 좌대위에 올리놓고 황토, 쑥법정을 하십시오. 놀랄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 료 원

여성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은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자궁질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궁적출수술과 낙태, 무분별한 성생활, 냉방에 거쳐하며 몸을 차게 한것과 또한 수세식변기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그곳에서 나오는 수분과 습기의 영향을 장기간 받게되어 냉증, 생리불순이 많이 생기고, 이상태가 오래되면 온갖 부인병과 자궁암, 허리요통을 유발하고 신장, 대장, 간까지 나빠지며 혈액순환까지 장애를 받아 나이들면 단성 신경통, 관절염의 원인제공이 되고있습니다. 전통쑥좌욕기는 1시간이상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안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심달력이 삼위일체로 합쳐져 인체조직 파괴의 위험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 자궁을 냉한것으로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고 청결하지 소독시키며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균을 살균시켜 온갖 부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미리 치료예방시키고 현재 질병을 갖고있는 여성에게는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성이 있는 집이면 어느 집이고 필수적으로 한대씩 구비해야 할 필수품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질환인 자궁병, 냉 · 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제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치료요법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병합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좌욕기 구성요인 각각마다 자체에서 발생되는 약성이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질병에 대한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킨 가정용 좌욕법전 요법기입니다.

특징 및 구성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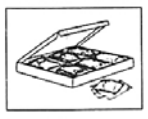














1 좌대 (좌욕대) : 황토를 주원료로한 부침 자기로 좌대를 만들어 뜨거운 열을 받으면 황토의 신비한 약성효력이 더욱크게 작용하는 황토의 특성을 살려 황토기운을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영향으로 좌대가 뜨겁게 되므로서 황토방에서 꼭맨 황토구들자위에 앉아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내열탕기 : 질병에 대해 기적의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되도록 바이오 세라믹이 80%이상 다량 함유된 특수 도자제(陶磁器)로 약쑥을 끓이는 내열탕기를 만들었고 빨리 식지 않고 1시간 이상 뜨거운 열을 발산하도록 두껍게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3 약쑥 : 쑥은 약쑥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해풍(海風)을 맞으며 강인하게 자란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끓일때 편리하고, 쑥의 약성분이 잘 우러나온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종이티백에 넣어서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100일분)

4 100%황토가루 : 「본초강목」「동의보감」「황약집성방」등의 의서에 황토가 들어있는 물은 그 약성이 매우 높아 이물을 끓일때 다른 물질과 섞이면 그 효능을 최상급의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기록에 따라 약쑥의 효능을 배가시키고 황토의 신비한 약성을 받고자 순수 황토가루를 투입토록 하였습니다.

5 내열탕기에 약숙과 황토가루, 붉은소금을 넣고 끓어서 황토받침대위에 그대로 올려 놓기만 하면 누구나 1시간 이상을 손쉽게 좌욕을 할 수 있어 편리하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좌욕기 한대로 남, 녀노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6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특별보급 가격 : ₩ 230,000

※ 본 좌욕기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아시고자 하는 분은 전화주시면 카다로그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 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 · 고혈압, 피폐,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경년기 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버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 체질 , 술 · 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대푸,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 · 군 · 구지회 미개설지역 · 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서울사무소 : (02)508-3284/5
●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02) 강남:563-0261~2 서초:508-3284~5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은평:305-2910 종로:747-7033 노원:942-6430 마포:715-2062 강북:994-3108 반포:597-7581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대구(053) 칠곡:323-2598 광주(062) 동구 228-8544 대전(042) 중구:222-4896 서구 534-4211 전주(0652) 덕진구:75-6733 경남지역 마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진주(0536)73-0039 울산(0522)74-7536 경북지역 경주(0561)72-3255 구미 · 군위(0578)3-5308 포항(0562)82-3155~6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충북지역 제천 · 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 경기지역 의정부(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용인(0335)35-4293 광주(0347)65-1047

부다피아 사이트여행



禪불교 비디오

설법·영화·티벳관련 영상정보

영상자료를 분류할 때 당연히 종교라는 장르가 있겠지만, 불교라는 특정종교의 분류항목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선(禪)불교 비디오' 웹사이트는 불교관련 영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 주목된다.

'선불교 비디오'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에는 선불교 개론·영상·불교일반 등의 정보를 비롯해 티벳과 관련 티벳불교·문화자료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제작된 불교영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명상과 무소유'(알란 와츠, 시인) '선불교 소개'(다이도 로리, 禪山사원 원장) 등을 비롯 6개의 선불교 관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죽음의 서' 등을 비롯 5개의 티벳 관련 영상정보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틱낱한스님, 성산스님의 설법을 영상제작한 비디오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선불교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라는 평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로 꼽고 있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과 함께 9개 불교영화 정보가 가장 눈길을 끈다.

현재 '선불교 비디오' 사이트에서는 단지 영상작품에 대한 개요와 가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불교관련 영상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사이트.

선불교 비디오 주소는 "http://www.tstimpreso.com/ram/zenvid/"이다. 〈욱〉

거사 본뜻은 체제비판 지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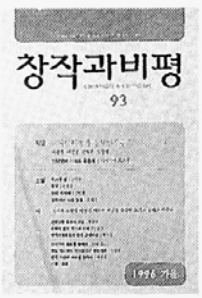
배병삼교수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기고

범어 '그리하' 한역… '재물가진 사람' 지칭

불교 대중화 이후 '재가 남자신도'로 정착



◇배병삼교수



◇배병삼교수의 논문이 실린 「창작과 비평」 가을호

불교에서 흔히 '재가 남자신도'를 지칭할 때 '거사(居士)'라는 호칭을 쓴다. 이러한 '거사'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의미로 정착되었을까.

거사로 지칭된 이는 본래 체제비판적인 비주류 인물들로 보수적인 성향과 함께 민중성과 토착성을 지닌 지성인을 의미하는 말로 불교가 우리사회의 지도이념으로 대중화되면서 오늘날의 의미로 정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병삼교수(성심외국어전문대)는 〈창작과 비평〉 가을호(창작과 비평사 刊)에 기고한 '한국 지성의 계보를 찾아서-삼국유사에 나타난 거사-'에서 거사라는 개념의 용례에 차근차근 접근하고 있다.

거사는 범어 '그리하(Grha)'의 한역어. 뜻으로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집에 있는 선비' '집에 있으면서 불교에 뜻을 둔 자'의 세 용례가 일반적.

배교수는 인도에서의 '그리하'는 '재물을 많이 가진 불교에 뜻있는 속세의 남자'를 지칭한 것이며, 그러던 것이 한역어로 쓰이면서 '재야의 비판적 지식인'을 뜻하는 말로 변형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들에 대한 보통명사적 지칭으로 보편화된 용어가 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배교수는 '그리하'라는 용어가 중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재야적이고 토착적인 비판적 지식인 그룹을 지칭하는 거사라는 전통적 용어가 적어도 제나라를 비롯한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이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와 같은 거사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자리잡았을까. 한역경전과 함께 불교가 이후 중국에 점차 불교가 대중화됨에 따라 불교 언어들이 격의(格義)적 종속성을 벗고 독립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불교에 심취한 속세간의 남성' 또는 그냥 일반 남성들어왔음을 고려할 때 인도식 '그리하'와 중국의 '거사·재야의 비판적 지식인'라는 뜻이 혼재된 형태, 즉 중국화된 거사의 개념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삼국유사〉 '기이(紀異)'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을 직접 교화시킬만큼 지배 이데올로기의 실질적 담지자들이 정치적·이념적으로 고등하고 보편적인 불교가 지배이념으로 대체되면서 이전의 '지배적인 토착 지성'을 '거사'라는 말의 내용으로 끌어안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거사에 관한 몇가지 용례에서 보면 토착화된 거사의 모습은 검게 물들인 승복(또는 작업복 내지 남루한 도포)을 입고 비파나 박으로 만든 악기를 갖고 노래하고 춤추며 유랑하는 모습으로 묘사돼 있다. 이들은 소박하고 민주적이었으며 슬직했으나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기성의 권력이나 고위 성직자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중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며 이들을 이끌었으며 눈푸른 지성을 가졌음에도 드러내지 않고 유유자적히 사는 노자 풍(風)의 인사들이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한명우 기자



"종교갈등 해소 불교가 나서야"

김상현교수 '한국의 다종교…' 북경대서 발표

'상호공존' 정신 시대적 장점

전통문화 계승 역할도 기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에서 종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교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현교수(한국교원대)는 9월 3~5일 종교학과 설치 기념으로 중국 북경대학에서 '종교학 연구현황과 전망' 등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토론회에서 '한국의 다종교 현황과 불교의 진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불교의 현주소와 미래의 역할을 설명했다.

한국에는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등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상호간의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제한 김교수는 이와 같은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 당위성으로는 불교의 근본이념이 상호이해를 통한 화합도모에 가장 알맞다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상호공존을 가르치는·연기론이나 교리에 집착하는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다의성(多義性)을 존중하는 법집(法執)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고 있는 점들이 타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적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라의 삼국통일이나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사실만 보아도 불교는 현대사회의 여타 갈등을 조화시키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교수는 아직까지 불교가 기대만큼 시대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사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복지나 환경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불교의 사회활동을 소개했다.

또 불교는 한민족의 문화형성에 결정적 공헌을 해 왔으나 개신교에 의한 서구문화의 급격한 유입과 보급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한민족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이를 지키면서 개방된 세계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향모색이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이며,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불교학인대회 전통강원 유지 노력

김광식씨 논문서 밝혀



삼학연구 통해 시대변화도 포용

지난달 30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월례발표에서 발표된 김광식씨(독립기념관 전시부장)의 〈조선불교학인대회 연구〉는 근대화가 시작된 1920년대에 신학문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전통강원 교육체계를 고수하기 위해 열린 '조선불교학인대회'의 성격과 활동상을 논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현재 조계종에서 추진중인 승가대학(강원) 교육의 체계화작업과 관련 근대화가 시작된 지난 20년대부터 전통강원 교육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 이번 발표에서 김광식씨는 당시 시대가 구학문이 경시되고 신학문 중심의 교육제도 육성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던 불교계 내부에서는 그 수용 범위 및 성격을 둘러싸고 갈등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교 교육제도의 대세가 신학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통적인 강원교육은 위축돼 갔다는 것.

그러나 1927년경에 이르러 불교계 일각에서 신학문 위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학인대회의 개최원인은 바로 신학문 중심의 교육제도 비판과 구학문으로 상징되는 강원 복구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였다. 즉 불교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때가 왔지만 이를 배척하는 것이 오히려 불교계 자체에 있다는 진단하에 불교계 중흥을 기치로 '조선불교학인대회'가 개최됐다.

계·정·혜 삼학의 연구와 교화 방식을 시대에 적용해 조선불교를 완성하고 강원의 학생들을 시대적 변화에 적응케 하기 위한 자기 쇄신이 주 목적이었다. 특히 학인대회에서 결의된 교육제도의 근간이 동·식물·광물학과 경제학 등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교과목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학인대회의 시대적응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전통과 시대적 흐름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금상첨화겠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데 불교계의 고민이 담겨져 있다.

선암사

대웅전

巍巍堂堂萬法王
(외외당당만법왕)
三十二相百千光
(삼십이상백천광)
莫謂慈容難得見
(막위자용난득견)
不離祇園大道場
(불리기원대도량)

높고 높아 당당하신 만법의 왕
32상으로 백천광명을 비춰 주는구나
그 자비로운 모습 뵈옵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기원정사 떠나지 않고 항상 이 대도량에 나투시나니

해설 선암사는 신라 49대 헌강왕 5년(875)에 도선이 지은 절이다. 들어가는 길의 승선교는 화강암의 아치형 다리로 매우 아름다운데 보물 400호로 지정돼 있다. 대웅전 앞의 3층석탑 2기도 보물 395호로 지정돼 있다. 선암사는 우리나라 현존 사찰중 고색(古色)을 매우 잘 간직한 절로 고찰의 아름다움을 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대웅전의 주련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큰 위신력과 그에 의지해 수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부처님은 이 법계의 높고 당당하신 법왕임을 첫 구절에서 찬탄하고 있듯 백천 광명으로 중생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은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생심이 부처님의 백천이나 되는 광명을 보지 못하는 탓일뿐 부처님이 먼곳에 있기 때문은 아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단언하듯 부처님은 기원정사(부처님이 제자들과 머물던 곳이지만 여기서는 이 세상을 뜻한다)를 떠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의 종자이고 우리 사는 이곳이 성불의 원토임을 말하는 것이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한국 사찰의 주련



"부처님은 사바세계 항상 계시네"

권 영 한

문화단신

금동여래입상 발굴

연기서…통일신라초 제작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입상 금동여래불이 발견됐다.

충남 연기군은 지난달 20일 연기군 서면 쌍유리 권터골(일명 부처골)에서 지표조사를 하던 중 금동여래불을 발견, 국립공주박물관에 세밀한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금동여래불은 높이 7㎝, 넓이 2.5㎝, 두께 2㎝ 크기로 청동재료에 금으로 도금돼 있으며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다.

연동사지 3층석탑 복원

전남 담양 금성면 금성산성터 입구의 연동사지 3층석탑이 복원됐다.

원행스님(담양 용화사)은 그동안 기단부 주위에 방치돼 있던 탑의 부분들을 일일이 찾아내고 없어진 2층 옥개석과 3층 탑신 일부에 대해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복원작업을 진행, 지난달 17일 복원을 끝내고 회향식을 가졌다.

이 탑은 고려초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침 91호 6면 오장홍씨 사진이 잘못 게재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壯元생엿

천연 자연식품의 신기원 그냥 엿이 아닙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먹어봐야 압니다.



특허청
특허출원중
제536351호

壯元생엿

바다의 나트륨성분과
육지의 칼륨성분을 추출한,
독특한 영양물질 탄생!

▶ 인체의 건강은 음성원소군(대표자 칼륨)과 양성원소군(대표자나트륨) K/Na의 조화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 인체의 질병은 체질의 산성화로 냉(冷)한데에 있습니다.
▶ 장원생엿은 두원소의 비율을 조절하는 영양식품으로 100%순수 식물로 구성된 한방식품입니다.

연구개발원 : 인강당 생약연구원
제 조 원 : 남광산업주식회사
판 매 원 : 불 교 건 강 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
상담실 (051)465—5100

※ 전화주문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깨달음 향한 정신집중 수행"

보르헤스의 ㉕ **불교강의**

禪불교 ①

6세기 달마대사 종파 구축
비논리적 화두 공부방편 이용



◇보리달마를 초조로 중국에서 융성한 선불교는 절대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며 폭넓게 전해졌다. 사진은 혜가가 달마에게 팔뚝을 잘라 바치며 법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그린 벽화.

불교는 인도 북부에서 기원하여 동아시아로 퍼졌다. 이 전도는 주로 인도 승려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인도에서 동아시아로 건너간 승려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보리달마일 것이다. 그는 6세기 초엽 중국에 입국하여 선종(禪宗)의 초조가 되었다.

그가 양무제(梁武帝) 앞에서 세속적 공덕을 쌓는 일보다 공적(空寂)한 지혜를 파악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불교의 가장 성스러운 교리(聖諦第一義)를 묻는 황제의 질문에 달마는 성스러운 것이 없는 텅빈(確然無聖)이라고 대답하고 떠나버렸다. 그는 황제의 실력으로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숭산 소림사(嵩山少林寺)에 들어가 면벽참선(面壁參禪)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고자 왼팔을 끊어 바친 혜가(慧可)에 의해 달마의 법(法)은 이어진다. 수년에 걸친 면벽기간동안 침묵을 지키던 달마는 그 충직한 제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다.

"제 마음은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시요."

달마가 대답했다.

"어디 자네 마음이란 것을 내놓아 보게. 그러면 내 그것을 진정시켜 줌세."

한동안 침묵이 흐른 끝에 혜가는 스승에게 "마음을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달마가 말했다.

"좋아, 자네 마음은 이제 평온을 찾게 되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가는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전등(傳燈)의 시작이다. 이후 선가(禪家)에서는 깨달음의 순간에 대한 수많은 일화들이 전해 내려온다. 우리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고민하다가 문득 그 답을 깨치게 되었을 때나 익살맞은 농담에 순간적으로 미소지을 때 느끼는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그 깨달음의 세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선종은 7세기에 등장한 천재 혜능(638~713)에 의해 크게 발전한다. 그뒤 한국과 일본에 전해져 극동불교의 대표적인 종파로 자리잡는다. 선(禪)은 중국어로는 찬(Chan), 일본어로는 젠(Zen)으로 발음된다.

선불교는 순수한 정신집중을 통해

7세기 중국서 선종융성…한국·일본에 전파
경전문구보다 '조사의 이심전심' 중시

언어와 감각의 실재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사물과 자신 나아가 붓다의 존재마저 의심해보는 수련이 요구된다. 많은 선원(禪院)에선 불경(佛經)의 권위가 그리 높지 않다. 선체험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며, 개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직접적인 관계가 매우 친밀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경전의 문구보다 조사(祖師)의 직접적인 이심전심 가르침이 더 중시되었다. 서양에도 "문자는 정신을 가두지만, 성령은 정신을 해방시킨다"는 속담이 있다.

좌선의 목적인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화두(話頭 혹은 公案)를 붙잡는 일이다. 화두는 대개 논리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물음으로 구성된다. 전형적인 화두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어느날 제자가 "부처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왔다. 동산수초선사(洞山守初禪師)는 "마삼근(麻三斤)"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에 무슨 특별한 상징적인 뜻이 담겼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어떤 스님이 조주(趙州)에게 와서 물었다.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승이 대답하기를 "뜰 앞의 잣나무이니라(庭前栢樹子)"고 말했다. 제자가 단순한 물건을 대상으로 들었다고 항의하고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조주는 다시 한번 "뜰 앞의 잣나무이니라"고 대답했다.

서양에서 엄격한 수도원 생활규칙을 세운 성 베네딕트(St. Benedict)의 규범과 비교할만한 〈백장청규(百丈淸規)〉의 저자인 백장의 문하에는 많은 승려가 모여 들었다. 불어난 승려들을 수용할 새로운 절을 짓고, 그 절을 관리할 지도자를 뽑기 위하여 모두 모이게 했다. 그들 앞에 항아리를 하나 놓고, "'항아리'란 말을 쓰지 않고 이게 뭔지 말해 보아라"고 했다. 수제자 중 한 사람이 나서서, "진흙조각도 아닙니다"고 대답했다. 이때 주방에서 일하던 젊은 스님이 지나가다 그 말을 듣고 항아리에 다가가 발로 찼다. 그는 아무 일이 없은듯이 다시 주방으로 가버렸다. 백장은 그 젊은 스님에게 새로 지은 사원을 맡겼다.

'토요'라는 일본소년의 이야기도 재미있다. 그는 열두살이 되던 해 모루타이 선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선사는 더 크면 오너라 하고 돌려보냈다. 소년은 다음날 다시 와서 졸라댔다. 할 수없이 스승은 문제를 내주었다. "넌 두 손으로 치는 손뼉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한 손으로 치는 손뼉소리를 내게 들려줄 수 있겠니?" 자기 방으로 돌아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소년의 귀에 이웃사람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아! 알았다" 하고 소년은 외쳤다. 다음날 소년은 스승을 찾아가 그 노래소리를 흉내내었다. "아니다. 한손의 손뼉소리는 그게 아니다" 하고 스승이 말했다. 소년은 조용한 장소를 찾아갔다.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다. "그래, 이거야!" 하고 소년은 생각했다. 다음날 소년은 스승 앞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흉내냈다. "그건 물방울 소리인 것 같은데, 한 손 손뼉소리가 아니야. 더 찾아 보거라" 하고 스승이 말했다.

그뒤, 바람소리,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 등등 많은 소리를 내었지만 모두 퇴짜맞았다. 일년이 넘었건만 소년은 여전히 한 손이 내는 손뼉소리를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스승에게 찾아가 "아무리 소리를 찾아 다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차라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스승이 말했다.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이 동 윤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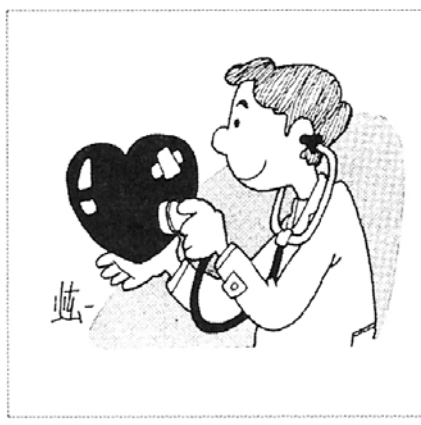
'신행일치' '1일1선 실천' 항상 다짐
군의관시절 봉급 쪼개 군병원포교 동참 '보람'

'사람이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할 일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 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귀절은 우리집의 가훈이다. 유능 정직 상냥 온화 겸손, 이런 덕목들은 평안한 마음의 경지에서 나온다는 것이지만 나는 생활인의 입장에서 그 덕목들을 실천하는 노력으로 마음의 평안이 구해진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가훈 속에 내포된 덕목들을 늘 생각하고 그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천명(知天命)이라는 40대. 그 막중한 책임과 일 그리고 병에 시달리는 곤혹의 나이에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이치다. 젊은 시절부터 가져온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것도 이 40대의 귀한 궤적일 것이다.

나는 가끔 경봉스님을 생각한다. 혈기방자하던 나의 대학시절 경봉스님은 젊은 나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고 기쁜 가르침이었다.



영축산 봉우리에 허옇게 눈이 덮힌 어느날 경봉스님을 찾아갔었는데 툇마루에 나오셔서 빛바라기를 하시는 스님의 모습은 말로 표현못할 경건함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스님의 뒤로 형성된 후광을 본 것 같았다. 그 말이 끊어진 시간의 우연한 체험. 도를 이룬다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활인으로 불법을 올바로 지키고 닦는 길은 어떤 것인가. 아무튼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었다.

여러차례 경봉스님의 방에 들어가 삼배올리고 법담을 들었지만 별로 생각나는 것이없다. 그러나 그날 우연히 본 노스님의 경건스런 위엄은 아직까지 생생히 떠오른다.

대학을 다닐때 나는 1년간 학생법회를 지도한 적이 있다. 법회에 나오는 학생들은 대개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잘 외우고 절을 많이 하고 법회 꼬박꼬박 잘 나오는 것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신행의 껍질에 더 집착하는 것 같아 기회 있을 때마다 '신행일치' '1일1선 실천' '이타행' 등을 강조했다. 그중 특별히 강조한 것이 하루 한가지씩 선한일을 하자는 것이었다. 선업을 짓고 남을 도와 주는 아름다운 행동을 외면하는 삶은 거칠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소신은 내 긴 군생활과도 함께 했었다.

군생활(군의관)을 시작하면서 나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불교의 군종업무에 무척 놀랐다. 여러 전투부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군병원도 포교의 사각지대이긴 마찬가지였다. 군병원이라는 환경은 특수 속의 특수다. 군생활을 하다가 몸을 다친 사병이나 장교들의 마음은 일반 환자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서글프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환경이 초라하다고 행동도 초라할 수는 없었다. 10여명의 위관급 장교들과 마음을 모아 법회를 꾸렸다. 그나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매우 기쁜 법회였다. 봉급을 쪼개서 책과 목탁 등을 마련하고 법회를 시작하니 점점 동참자도 늘어났다. 매주 여는 법회에는 환자들과 기간병은 물론 불교에 관심 있는 장교들도 많이 참석했다.

당시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스님이 단기병으로 입대해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 스님이 인연 닿는 절을 찾아 다니며 스님들께 어렵게 청해 얻은 글씨와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수익을 위한 전시회는 아니고 포교를 위한, 인연을 지어 주는 전시회였는데 무척 성과가 좋았다. 큰 스님들의 서화를 그냥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참다운 불교의 모습을 보여 주는 일이란 생각이 앞섰던 것이다. 그 병원에서 전방으로 전속되어 간 뒤에 그 전시의 효험(?)이 굉장하다는 뒷소식을 들었다.

그 후로도 여러 임지를 다니며 나름대로 법당에 다녔지만 아직 군포교는 못다 쌓은 탑인것 같아 안타깝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기업 - (주)두풍산업

스님! 장엄 불사 (주)두풍산업에 맡겨보십시오!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불교문화의 창달에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최고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현세에 한번 밖에 할 수 없는 불사!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시작하십시오.
불사의 어려움, 나머지 반은
저희 (주)두풍이 책임지겠습니다.

영 업 안 내

불교건축	조각 · 미술	불 상
사찰 고건축 콘크리트조 단집 내장…	단청 개금 탁자 탱화 영단 주련 법상 현판 연…	천불조성 석불 대불 목불 동불 특수불

(주) 두풍은 처음으로 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사의 경제적 부담의 반을 회사가 책임집니다.

이제 시멘트 공법으로 법당과 요사채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무나 할수없는 것이 불교문화의 건축입니다.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신개발 공법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남길수 있는 불사로 만들겠습니다.

◇ 서까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 포작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 익공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 기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dp doo poong 株式會社 斗豊産業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6-8 (두풍B/D) ☎ (02)439-3900 FAX 439-3933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⑪

諸位常時來請開示 令我很覺感娘
제위상시래청개시 령아한각감괘
諸位天天辛辛苦苦 砍柴種地
제위천천신신고고 감시종지
挑土搬磚一天忙到晩
조토반전 일천망도만
也沒打失辦道的念頭
아몰타실관도적념두
那種爲道的殷重心 實在令人感動
나종위도적은중심 실재령인감동

그대들이 늘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니 나로서는 부그럽기도 하다.
그대들은 날마다 괴롭도록 나무하고 씨 뿌리며
흙 돋우고 돌을 나르느라 하루가 훌쩍가매(저녁이 된지도 모르니)
도를 이루려는 생각조차 잊고 만다.
어떤 것이 도에 대한 은중한 마음이며 실로 사람을 감동케 할 것인가.

虛雲懶婦 無道無德 說不上所謂開示
허운참괘 무도무덕 설불상소위개시
只是給古人幾句話頭 來參辦道之門而已
지시습고인기구연타 래수제위지문이기
用功辦道的方法很多 現在且約略說說
용공관도적방법한다 현재차약략설설

"전생 알려거든 금생에 받은 그것이고
내세 알려거든 금생에 지은 바 보라"

無論基麼人 尤其想用功辦道的人
무론심마인 우기상용공관도적인
先要深信因果 若不信因果 妄作胡爲
선요심신인과 약불신인과 망작호위
不要說辦道不成功 三塗小他不了
불요설관도불성공 삼도소타불료

허운은 부끄럽다. 도도없고 덕도 없어 법상에 오르지 않고 이른바 법을 설하니
다만 옛 사람의 몇마디 말씀해 놓은 구절을 추려서 그대들의 질문에 대꾸하노라.
애써 수행하고 도를 이루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지금은 요약해서 설하리라
물론 누구라도 수행하여 도를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깊이 인과를 믿어야 한다. 만약 인과를 불신하면 망녕되어
도를 이루려다고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성공하지도 못하리니 삼악도의 작은 것도 요득할 수 없다.

古德云 欲知前世因 今生受者是
고덕운 욕지전세인 금생수자시
欲知來世界 今生作者是
욕지래세계 금생작자시
又說 假使百千劫 所造業不亡
우설 가사백천겁 소조업불망
因緣會遇時 果報還自受
인연회우시 과보환자수

고덕이 이르기를, 전생의 원인을 알려거든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고
내세를 알려거든 금생에 짓는게 그것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가사 백천 겁이라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아서
인과 연이 만날 때에는 과보를 되돌려 받게 된다고 하였다.
능엄경에서 설하기를 씨뿌린 터가 참되지 않으면 열매도 구부러진다고 하였다.

故種善因結善果 種惡因結惡果
고종선인결선과 종악인결악과
種瓜得瓜 種豆得豆 乃必然的道理
종과득과 종두득두 내필연적도리
談到因果 我說兩件故事來證明
담도인과 아설양건고사래증명

① 釋迦佛前 迦葉羅城裏 一個捕魚村
석가불전 가비라열성리 일개포어촌
村裏有個大池 那時天旱水枯
촌리유개대지 나시천한수고

고로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외를 심으면 외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 것은 필연적 도리이다.
말이 인과에 이른김에 두가지 고사를 들어 설명하겠노라.
① 석가모니 부처님 나시기 전에 가비라성에 한 어촌이 있었다.
이 어촌 가운데 큰 연못이 있었는데 어느 때 가뭄이 들어 물이 말랐다.

池裏的魚類給村人取喫
·지리적어류급촌인취끽
最後剩下一尾最大的魚 也被享殺
최후잉하일미최대적어 야피팽살
祇有一個小孩從來沒有喫魚肉
기유일개소해종래불유끽어유
僅那天殺了大魚頭三下來玩耍
근나천고료대어두삼하래완요

못 속의 고기들을 마을 사람이 모두 잡아 먹었다. 맨 나중에 가장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이것 또한 팽살 당했다.
그때 한 아이가 있어 예로부터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장난삼아 큰 고기의 머리를 세 번 두드리게 되었다.

龍眼

★ 지상법석

"비뚤어진 말·생각·행동



고성스님 〈미국 한국사 회주〉

약력
- 53년 범어사에서 득도
- 70년 도미, 윌드젠센타서 안거
- 72년 콜롬비아대학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
- 78년 메릴랜드에 한국사 건립
- 79년 아메리칸 젠칼리지 설립
- 현재 메릴랜드 주립대등에서 동양철학, 한국선 등 강의

우리가 많이 읽는 경전 중에 〈법화경〉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화경〉을 읽는 마음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물론 〈법화경〉뿐 아니라 모든 경전을 읽는 마음과 생활하는 마음이 다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 그릇의 모양새대로 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면 가난과 괴로움과 빈곤이 덕으로 인해서 해결되는데 일시적인 해결이 아닌 몇생을 두고 해결됩니다. 한 번 〈법화경〉을 알고 진리를 알면 몇생, 몇억겁을 통해서 태어나도 가난과 괴로움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묘법이고 묘법은 곧 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은 진리고 부처님이므로 부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글자만 있다고 보면 어려운 분입니다. 즉 글자에만 집착하고 소리, 용어, 언어에 의존한다면 참다운 부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리 용어를 통해 나를 찾으려 하는 사람은 사도에 있는 사람이어서 결코 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실상묘법이라는 것은 이 찰나에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상

"몸과 마음은 하나
둘이라고 생각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하지 않는사람"

을 보는 사람은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 번뇌 망상이 저절로 가라앉게 돼어 있습니다. 정진하는 사람에게 '번뇌를 없애라 망상을 벗어나라, 번뇌의 불꽃을 없앰으로써 너는 진정한 불성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실상법 하나만 알고 있어도 번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아주 행복한 경우를 만났을 경우 그 행복한 마음에는 다른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한 마음은 아주 조촐하고 맑은데 실상을 보는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이 돼서 그 마음에 추호도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상은 곧 부처님이라 했습니다만 부처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자꾸 걸려 넘어가는 것이죠. 마음이 한 번 어려운데 걸리게 되면 한 번이 네 번되고 네 번이 여덟 번 되고 여덟 번 걸리던 것이 열여섯번 걸리게 되어 한마음 잠깐 잘못 굴리면 그 한생각으로 인하여 팔만사천 가지 번뇌에 가득차서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 실상을 본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마음은 정직하게 듣질 않아요. 모두 마음이 듣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는 그러하지만 나의 경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려요. 비뚤어진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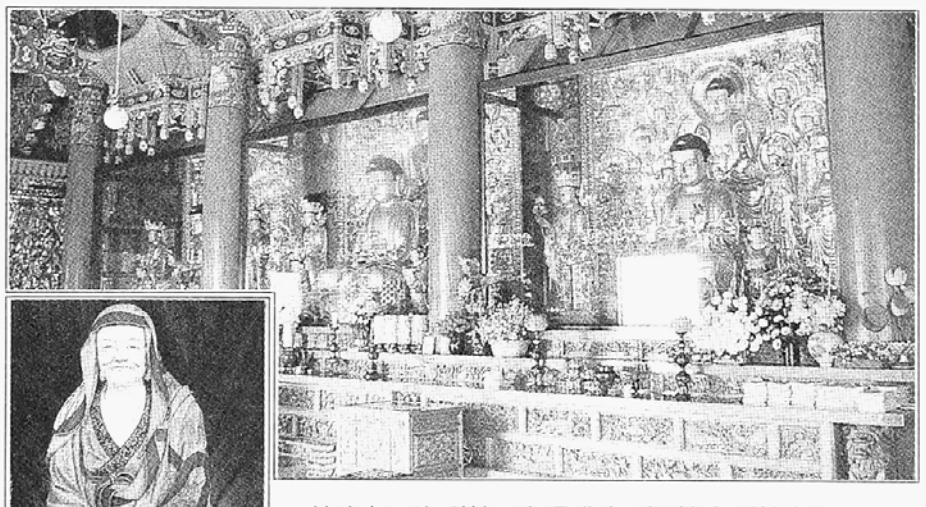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간단한가요. 마음 하나에 몸하나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둘인것 같지만 둘이 있다하면 그 사람은 종국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삼매입니다. 일만가지 번뇌망상을 극복하는 능력이며 그 능력이 더 깊은 삼매를 가져오며 부처님의 위력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불법은 원만한 가치입니다. 더러운 것부터 깨끗한 것까지 차별없이 두루 수용하는 원만하고 조화로운 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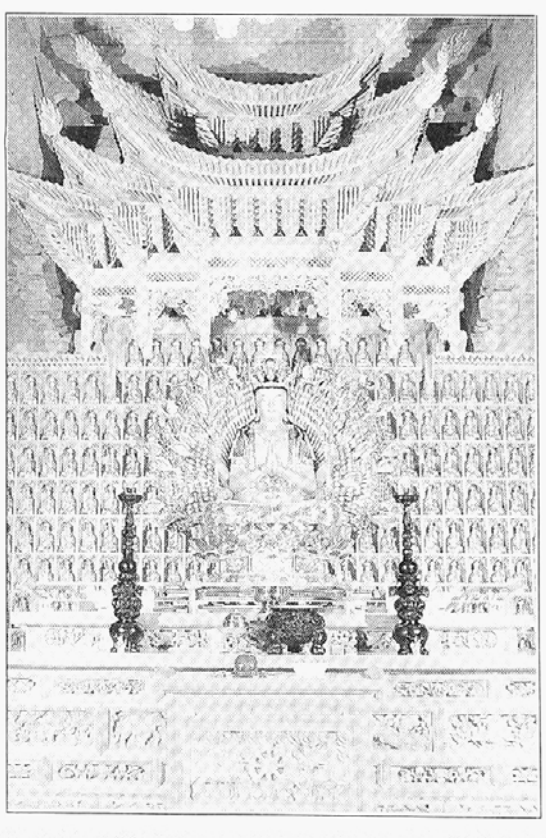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양과 색깔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형상일 뿐입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나무가지가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거나 바람이 부니까 흔들린다고 보지만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나무도 바람도 그 흔들리는 원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 차원은 그 사람의 마음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라야 의식이 분명해집니다. 마음 자세가 틀리면 아무리 지식이 높아 많이 알아도 틀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안다는 생각에서 이중 삼중의 말들이 튀어나와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마음은 한순간도 가만있지 않고 뜨고 가라앉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고독하고 같이 있으면 딴 사람과 비교되고 잘 나 보이고 싶고 경쟁하고 싶어지는데 그 마음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추를 단 듯한 무게를 짊어지고 다니게 됩니다. 마음에 무게가 있으면 불편하고 탐진치에 빠져들어 팔만사천번뇌에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음의 무게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합니다. 불교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을 알면 아는 것을 부지런히 실천해야 합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지상법석

팔만사천 번뇌 낳아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말을 베푸는 것은 나를 위한 투자이고 복짓는 길입니다"

니다. 종사짓는 사람이 이론만 알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이론을 알면 그 아는 것 이상으로 실천해야 하고 실천이상으로 삼매를 경험해야 합니다. 삼매와 지혜를 한꺼번에 닦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혜라는 것은 분명히 깨어있고 떠돌아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 걸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마음, 고요한 가운데 광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추호도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자세가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식만 보고 단단합니다. 의식만 보는 것은 망상과 번뇌에 걸려서 반드시 인과응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누구나 분명히 받게 되지만 만한 조화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청년이 나를 찾아와서 "스님,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잘되지 않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분하게 생각하니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하더군요. 그래서 억울함을 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나 억울한 마음을 관(觀)하여 마음의 근본이 없는 것을 터득하기는 쉬운 것이다. 그러니 앉아서 깊고 천천히 하는 호흡을 하면서 상처 입은 억울한 마음을 관하여라. 너를 억울하게 한사람이나 그 동기를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성실하게 관하면 그 상처는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다. 몸과 마음과 호흡이 일치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하여지며 자연히 그 억울함에 대항할 지혜가 나타난다고 일러 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허공처럼 커서 덕을 이루는 것인데 번민하는 마음을 그때그때 관하여 깨끗이 없애는 정진을 하므로 실상인 묘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명백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속아서 항상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속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속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한 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방세계가 마음의 조작으로 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중천에 떠 있는 밝은 해는 항상 제자리에 있으나 아침이면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서산에 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다만 지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마음은 결코 번민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내 자신이 속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마음에 속지 않으면 모든 번뇌는 보리(지혜)로 승화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상묘법과 차별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어떤 경우와 환경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이겨나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능력이 바로 마음쓰는 방법입니다. 속지 않는 마음은 쉽게 실상을 알아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마음은 판단력을 잃고 번민에 잠깁니다. 이때는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생깁니다.

괴로움을 담고 있는 심정은 무게로 느끼게 되고 무게 있는 마음은 답답하고 때로는 공포, 그리고 외로움 시기 질투 절망 등 가지 각색의 번민이 일어 나서 자신이 사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것을 거듭하면 윤회라고 하고 여기에 괴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이 삼독심(탐 진 치)을 삼학(계 정 혜)으로 승화시키는 정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바로 삼보를 믿는 마음에 정성이 어려야 하는데 정성어린 마음은 삼매에 드는 길이고 삼매에 든 마음은 삼독심을 승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기도, 참선, 염불, 간경으로 삼매에 드는 마음은 발심과 정진에 따라서 차원이 다르나 결국 해탈의 문에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실천 정진하는 종교라고 하는가 하면 깨달아 그 마음이 성숙해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뚜렷한 의지가 서서 밝아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람은 한국인의 정신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떠한 경우나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향에서 벗어나 원만한 가치와 능력을 발휘하는 뚜렷한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에게는 보살의 경지처럼 광대한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실상을 볼 줄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실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면 상대에 따라 보는 것에 따라 번뇌가 일고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마음이 일어나 괴롭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마음이 끊어지고 조촐하고 정직한 대화를 하므로 몸과 마음에서 향이 납니다 그 마음에서 나는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향기를 맡지 못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속아 넘어갑니다.

마음에서 향기를 내는 것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서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해주면 좋지 않은 마음이 저절로 없어져 향이 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당신은 성불할 것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더욱 성불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면 좋은 인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수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마음이 단순할 수록 수행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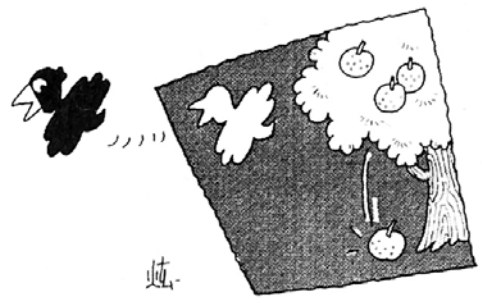
아름다운 말 행동, 생각을 단순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영원히 복을 짓는 지름길입니다. 죽어서 열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열반해야 올바른 투자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투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좋은 말을 하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실상을 아는 사람은 물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물질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마음이 바로 서면 물질이 절로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향기를 안 내고 아상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상을 버리는 첫 관문으로 아름다운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짓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투자하는 길입니다.

'무게있는 마음'에서 윤회반복 "마음을 비워라"

"불법대로 실천 지혜생기면 매사에 걸림없어"

"실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밝은 빛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이치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3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20

시간과 공간

추상적 관념처럼 보이나 물질과 같아
'절대시공간 부정' 상대성이론 출발점

사람들은 우주와 물질에 관해 얘기할 때 보통 시공간(時空間)은 생각지 않는다. 물리학자들도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상대성이론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시공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을 한데 묶어 시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서 볼 때 시간과 공간은 서로 관련이 없고 물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은 공간이 어떻게 되었던 아득한 과거에서부터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고 시간을 측정하는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동시성(同時性)도 의심없이 우주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이순간 미국에 있는 내 아버지는 무얼하고 계실까? 누구도 이런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순간이라는 것이 나에게나 아버지에게나 또다른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정의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고 흘러가며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상의 한점인 어떤 한 순간마저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경험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간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나에게 100m인 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100m이며 물질과 상관없이 무한히 넓게 퍼져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공간은 물질이 있건 없건 무한히 펼쳐져 있는 관념적인 것이다. 공간이 비어 있어도 거기에서 공간의 길이를 생각할 수 있고 물질로 꽉 차 있어도 똑같은 길이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이 시공간인 것처럼 보인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공간을 절대시공간이라고 부른다. 시공간은 길이를 잴 수 있다는 뜻에서 물리학적인 개념이지만 '사랑'이나 '슬픔' 같은 비물리학적인 추상적 개념보다 더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시공간의 개념이다. 사랑이나 슬픔은 물질처럼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실체가 아니지만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슬픔과 기쁨을 느낌으로써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비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공허한 것은 아닌데 절대시공간은 물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공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런 형체도 없고 물질과 영향을 주고 받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공간이 형체도 있고 물질과 영향을 주고 받을뿐 아니라 물질처럼 태어나기도 하고 없어질 수도 있으며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의 운동상태에 따라 시간이나 공간의 길이도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졌다는 사건이 있다면 세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까마귀가 먼저 날고 그 다음 배가 떨어지는 것,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 것, 배가 먼저 떨어지고 다음에 까마귀가 난 것 세가지 경우이다. 절대시공간의 개념이 옳다면 세가지 경우 중 하나만 옳겠지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세가지 모두 옳다. 배나무 과수원의 동쪽 끝에 있던 까마귀가 날 때 서쪽 끝에 있는 배가 떨어지는 것을 과수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고서 "까마귀가 나는 것과 배가 떨어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주장한다면 분명이 그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본다면 배가 먼저 떨어지고 까마귀가 나중에 날은 것처럼 보인다.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본다면 까마귀가 먼저 날고 배가 나중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셋중에 누가 옳다는 법이 없다. 셋 다 옳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세가지 해석이 다 옳다는 것을 분석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출발점이 된다. 절대시공간이 붕괴되고 시공간이 물질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상대성이론이 보여준다.

시공간은 정말 공(空)한 것처럼 보이므로 무색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물질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티벳승왕 달라이 라마 초청

인류평화와 환경보전을 위한

국 제 대 법 회



■목 적
가. 국제대법회를 통하여 우리 불교도들의 단합된 의지를 천명하고,
나. 인도공화국과 우의드모, 교류확대
다. 한국불교의 위상제고
라.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대회에 대한 국민적 열기 고취

■일시 및 장소
가. 불기 2540(1996)년 10월 21일 오전 9시
(한국시간 낮 12시)
나. 인도공화국 뉴델리시 특설법회장

■주 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BBS불교부산방송

■특별후원
인도공화국 부산·경남 명예총영사관, 인도공화국 한국불교협회

■후 원
부산불교신도회, (주)대한불교신문, 불교신문, 주간불교, 현대불교, 법보신문

■특별협찬
대한항공

■행사내용
-. 인류평화와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대법회
-. 부처님 사성지 순례 및 관광
-. 티벳트 승왕 달라이 라마 친견
-. 무칠란다 용왕못 방생

■참가대상
가. 전국원로대덕스님 다. 각사암 주지스님 및 신도
나. 신행단체지도자 라. 인도공화국 스님 및 교민불자

■출발일정 및 비용
가. 1진 출발 10월 13일~22일
2진 출발 10월 20일~29일 (9박 10일)
나. 참가비용 : 1인당 ₩1,480,000원
다. 교통편 : 대한항공 전세기(부산에서 직항)

온라인 — 근민은행 : 115-01-0338-749
부산은행 : 040-01-030468-8 (예금주 : 불교연합회)

■수속대행여행사
(주) 명문여행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0-9 TEL : (051) 462-1231

■문의처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 867-0501 · BBS불교부산방송 ☎(051) 644-5114

일 정 표

구별	1진(10월 13일~22일) 지역				
A팀	10/13 일 부산 뉴델리	10/14 월 뉴델리 이그라	10/15 화 이그라 바라나시	10/16 수 바라나시 부다가야	10/17 목 부다가야 라지기르 나란다 파트나
	10/18 금 파트나 바이살리 고라크프르	10/19 토 고라크프르 룸비니 바틀프르	10/20 일 바틀프르 란나우 뉴델리	10/21 월 뉴델리	10/22 화 뉴델리 빙룩 부산
B팀	10/13 일 부산 뉴델리	10/14 월 뉴델리 란나우 바틀프르	10/15 화 바틀프르 룸비니 쿠시나가르	10/16 수 쿠시나가르 바이살리 파트나	10/17 목 파트나 나란다 라지기르 부다가야
	10/18 금 부다가야 바라나시	10/19 토 바라나시 이그라	10/20 일 이그라 뉴델리	10/21 월 뉴델리	10/22 화 뉴델리 빙룩 부산
C팀	10/13 일 부산 뉴델리	10/14 월 뉴델리 파트나 바이살리	10/15 화 파트나 나란다 라지기르 부다가야	10/16 수 부다가야 바라나시	10/17 목 바라나시 쿠시나가르
	10/18 금 쿠시나가르 룸비니 바틀프르	10/19 토 바틀프르 란나우 이그라	10/20 일 이그라 뉴델리	10/21 월 뉴델리	10/22 화 뉴델리 빙룩 부산
D팀	10/13 일 부산 뉴델리	10/14 월 뉴델리 오랑가바드	10/15 화 오랑가바드	10/16 수 오랑가바드 잘못은 브랄	10/17 목 브랄 산치 브랄
	10/18 금 브랄 이그라	10/19 토 이그라	10/20 일 이그라 뉴델리	10/21 월 뉴델리	10/22 화 뉴델리 빙룩 부산

구별	2진(10월 20일~29일) 지역				
E팀	10/20 일 부산 뉴델리	10/21 월 뉴델리	10/22 화 뉴델리 이그라	10/23 수 이그라 바라나시	10/24 목 바라나시 부다가야
	10/25 금 부다가야 라지기르 나란다 파트나	10/26 토 파트나 바이살리 고라크프르	10/27 일 고라크프르 룸비니 바틀프르	10/28 월 바틀프르 란나우 뉴델리	10/29 화 뉴델리 빙룩 부산
F팀	10/20 일 부산 뉴델리	10/21 월 뉴델리	10/22 화 뉴델리 란나우 바틀프르	10/23 수 바틀프르 룸비니 쿠시나가르	10/24 목 쿠시나가르 바이살리 파트나
	10/25 금 파트나 나란다 라지기르 부다가야	10/26 토 부다가야 바라나시	10/27 일 바라나시 이그라	10/28 월 이그라 뉴델리	10/29 화 뉴델리 빙룩 부산
G팀	10/20 일 부산 뉴델리	10/21 월 뉴델리	10/22 화 뉴델리 파트나 (바이살리)	10/23 수 파트나 나란다 라지기르 부다가야	10/24 목 부다가야 바라나시
	10/25 금 바라나시 쿠시나가르	10/26 토 쿠시나가르 룸비니 바랄프르	10/27 일 바랄프르 란나우 이그라	10/28 월 이그라 뉴델리	10/29 화 뉴델리 빙룩 부산
H팀	10/20 일 부산 뉴델리	10/21 월 뉴델리	10/22 화 뉴델리 오랑가바드	10/23 수 오랑가바드	10/24 목 오랑가바드 잘못은 브랄
	10/25 금 브랄 산치 브랄	10/26 토 브랄 이그라	10/27 일 이그라	10/28 월 이그라 뉴델리	10/29 화 뉴델리 빙룩 부산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은 불교대하소설



91



삼계화택

"저기가 고통의 나날인데 여기라고 등져 남남일 수 있겠느냐"

인담 대해는 두 아이와 그들의 통나무 맷목까지 글고 섬에 올라왔다. 우선 대해는 그들이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아 보았다.

그가 바다 위의 잠상(潛商) 노릇을 할 때 청나라 연안에서 구조한 한 사람이 그곳 서주와 창주 일대를 휩쓴 괴질의 환자여서 배 안의 잠상 하나가 전염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아보는데는 버릇이 들었던 것인가.

눈계풀을 까서 눈동자나 환자위를 살핀다던가 입안을 들여다 본다던가, 그런 뒤 다른 것도 이것저것 까다롭게 알아 보았다.

"여칠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별 탈이 난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대해가 말하였다.

"세상이 어찌 굴러가고 있는지… 백성들이 여기 저기서 난리를 일으키거나 초적(草賊)이 되고… 그런가 하면 역병이 돌아 뭇 목숨들이 픽픽 쓰러지는 판이라… 어디 역병만인가. 그 사흘나흘 멤물만 마시고 굶주림은 또 어떤가… 세상을 괴로운 바다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은 오늘에 이르러… 너무 옳은 말이어서 도리어 헛소리인 것 같으니…."

인담은 별로 입에 담지 않던 한숨까지 내며 이런 말을 저혼자 하고 있었다.

우녀와 소석도 막 물에서 올라 온 아이들에게 마실 물부터 준 뒤 우선 아무런 것이나 젖은 것을 벗게 갈아입힐 옷가지를 갖다 놓았다.

대해가 아이들에게 물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마시도록 했다.

"벌컥벌컥 들이키면 못쓴다… 물 한 모금도 곡곡 씹어서 먹어야 한다. 물도 밥이다."

얼마 뒤에 소석이 환죽을 쑤어 왔다.

"식혀서 먹어야 한다."

"……."

"사람이란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굶주린 몸으로도 짐승처럼 마구 먹을 것에 덤벼들어서는 안된다. 부모가 보인 다음에 먹어야 한다…."

"부모가 다 세상 떠났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의 이름이 이우식이고 다른 아이는 신만우였다.

신만우도 "저도요" 라고 말하였다.

다시 대해가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은 아이들을 꾸짖었다.

"부모가 안계시면 부처님이 보이도록 해야한다."

그러자 우녀가 나타나 "잔소리들이 많네… 그냥 먹게 내버려 두어요" 라고 두 어른들을 탓하였다.

"어서 먹어라… 이제 먹을만 하겠다" 라고 우녀가 따뜻하게 아이들을 달랬다.

이렇게 해서 무욕도에는 여섯사람의 식구로 늘어난 것이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식이와 만우는 제 몫을 단단히 해내기 시작하였다. 그 애들에 대한 앓은 우녀가 말았다. 오전에는 지난번 모진 바람에 날아간 뭇채를 고친 뒤 그곳의 방에서 공부를 시켰다.

공부라고 해야 인담이 글을 가르쳤다. 글 따위를 벗어나는 선(禪)의 사람들이 글을 가르친다는 것은 일단 야릇한 일이다. 하지만 선이 이 세상의 말과 글을 다 죽인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것에 갇히는 바를 벗어남은 부정하는 일 자체가 이미 거기에 갇히는 바가 되지 않을 수 없음을 드러낸다.

인담은 원효의 글을 한 자 한 자 가르친 다음 그 글의 뜻을 새겨주는 것이었다.

> 뭇 중생이 화택문(火宅門)을 떠도는 것은
> 한량없는 이 세상에 탐욕을 버리지 못한 탓이라
> (衆生衆生 輪廻火宅門 於無量世 貪慾不捨)

"이 화택이란 불타고 있는 집이겠지? 만약 그 불타는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빨리 그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하겠지? 그런데 그런 불이 나느냐 하면 우리 중생들이 너도 나도 탐욕에 빠져 있어서 거기서 나는 탐욕의 불이기도 하지. 그러므로 불타고 있는 집은 이 세상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들의 마음 속이기도 하겠지."

"스님!"

우식이가 고개를 갸웃둥거리다가 말하였다.

"그동안 저희들이 살았던 세상도 불타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잎으켜서 불이 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겠지… 세상에는 탐욕 속에 푹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는 중생들이 일으킨 불도 있고 아직 탐욕을 모르나 장차 그 탐욕에 빠질 수 있는 중생들이 있는 법이니라."

이런 말에 우식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것은 일단 자신도 지금 세상이 당하고 있는 여러 고통과 불타는 집으로 그려지는 일들을 무턱대고 인과(因果)로 말해버리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리거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지난 날의 악업 때문에 받는 과보라고만 말해버린다면 도대체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겠는가.

인담은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얼마쯤의 회의도 있게 되었다. 아니, 심지어는 그가 이 섬의 도량을 열어서 진리에의 정진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의미의 상실도 있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 두 아이가 나타난 것이야말로 그에게는 그가 해업처나가는 불 위에서 엄청난 과도더미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삼계(三界)가 편안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三界無安猶如火宅)' 라고 말한 방편설화 자체가 지금 조선반도 전역을 휩쓸고 있는 '불타는 집'에 대한 어떤 회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인담은 그런 생각을 마당의 중방아리를 노리고 나타난 살쾡이를 쫓아내는 것처럼 쫓아 버렸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원효가 삭발한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지은 것에 틀림없는 '마음 잎으켜 수행하는 글(發心修行章)'에 대한 새삼스러운 기쁨을 누렸다.

> 산 메아리와 바위굴로 염불하는 법당 삼고
> 슬피우는 새소리로 즐거운 벗 짝을 한다
>
> 이런 귀절에 이르러 그에게는 이 무욕 도량이 새삼 높은 은혜로 이루어진 도량임을 깨달았다.
>
> 예배드리는 언 무릎에 불 생각을 말 일이요
> 굶주린 창자 끊어져도 먹는 생각 잊을지어다
>
>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행하는 꼴을 보면
> 모래를 찍 밥을 짓듯 힘만 들고 어렵구나

"그러다가 오늘이 이미 저녁이라 내일 아침 곧 온다네(今日夕矣 朝朝則至)라고 얼러서 다 된 수레로는 가지 못하고 늙은 몸으로는 닦을 수 없다(破車不行 老人不修)고 경고하다가 급하다 급하다(莫速急乎 莫速急乎)"라고 외칠 때는 그의 간담이 서늘할 지경이었다.

그가 두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도리어 이제까지의 그 자신을 깨치는 일이 될 줄이야.

그리고 본즉 원효의 글을 이루고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글자가 아니라 무서운 호령이고 질타였던 것이다.

이토록 스승의 마음이 그 자신의 가책과 참회로 가득해짐에 따라 생기는 새로운 진실이야말로 두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곧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인담은 우식이와 만우를 사랑하게 되었고 두 아이들도 스승 인담을 한없이 받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우녀가 그런 상태의 인담에게 슬쩍 질렀다.

"인담화상께 아들이 둘이나 생겼습니다."

인담이 머쓱하게 웃었다.

"내가 아비요 내가 어미인 셈이요."

"이제 화상께서는 나를 영영 내버린 셈이요?"

이런 팔딱한 농담 속에는 인담과 우녀 두 사람만이 공부하던 호젓한 행복을 그리워하는 어떤 심정도 엿보이고 있었다.

"내버리다니… 아무리 여기서 내버려보아야 저 과도들로 돌아올 따름인 것을."

"누가 고려의 가난뱅이 사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랄까보아."

"나에게서 임춘선생은 이미 떠났오.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오?"

> "
> 굶거나 병들어
>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 과보라고만 말한다면
> 도대체 자비는 무엇일까
> "

"이제야 출가사문(出家沙門) 이시구려."

"오늘도 하늘이 흐리고 하늘 아래 한 보살이 밝지 않도다."

우녀가 정색하였다. 이제까지의 수작을 바꾼 것이다.

"아이들은 쓸만합니까?"

"내가 옹기라면 그 녀석들은 도기(陶器)에다 상감(象嵌)을 넣을만 하다오."

"그렇다면 이 섬구석에서 금께마귀가 날라가겠네."

그녀는 모처럼 아이들의 공부 실참에 왔다가 갔다.

"자… 올라가 보자… 저 꼭대기에" 라고 인담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일어났다.

아침내내 공부랍시고 방안에만 있다가 나오게 되니 아이들은 숲사이로 보이는 바다에 신명이 났다. 그들은 산꼭대에 올라가서 바다를 실컷 바라보았다. 바다는 사람이 높이 올라 갈수록 바다도 쑥쑥 올라가 하늘 속에 그 수평선을 올려 놓고 있었다.

"저기 불래?" 라고 동쪽 소나무 사이의 육지 혹을 인담이 가리켰다.

"저기가 너희들이 떠난 곳이 되겠구나."

"……."

두 아이는 신명난 얼굴이 당장 바뀌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즐거워하지만 저 육지는 지금 아무런 즐거움도 없다…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여기인들 어찌 즐거울 뿐이겠느냐… 여기가 있으므로 저기가 있음이라면 저기가 온통 고통의 나날인데 여기라고 그 고통과 등져 남남일 수 있겠느냐."

"……."

"나는 이것이 장차 우리가 할 공부에 나오는 과목이라 생각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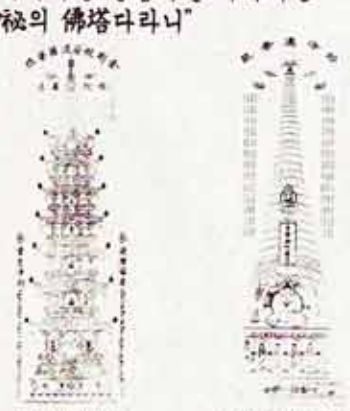
"……."

그림 · 조 항 숙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塔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정 신탑다라니〉 〈모방변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영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50cm

■ 부산 경상남북도
■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성)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3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기타 지역상담 문의및
■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회장 백인)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 佛탑다라니의 신비로운 영험력!

1)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악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2) 이 氣(기)는 신심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한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지가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氣(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방출되면 악한운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3)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갈등화복까지 판단할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것인지? ● 언제 이루어 질것인지? ●조상님의 영기가 천도되었는지? ●하고자 하는일이 성사될것인지? ● 무슨일을 하면 될것인지 ? ●대학 입시에 합격할것인지? ●어느 대학에 들어갈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것인지 ? 등 어떠한 일이든 신탑다라니 안에 적어놓고 氣(기)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 질것은 氣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氣가 나오면 신중할수 (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를 받으면 문제가 바뀌어 이루어 지고 있는 일이 하다합니다.

4)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 없이 많은 온갖 靈(영)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은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피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끊끊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 커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 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일이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5)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영험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없어지지 않고 氣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 :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하심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 경위와 사용방법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 요청은 가능한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수입완제품"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 · 류마티스 · 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분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신고합니다! 장애인 1일 병영체험



◇1일 병영체험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현역군인들과 내무생활을 함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지체·청각·언어 장애인 31명 참여
방독면 착용·수류탄 투척등 실습

"군복입으니 자신감 생겨요"

"내도습 어떻습니까. 군인이 된것 같아요?"

생전 처음으로 군복을 입어본다는 최성욱씨(29, 정신지체 1급)는 오늘 하루 결연을 맺은 김성수 이등병을 향해 연거푸 거수경례를 하며 군문을 들어선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군에와서 처음으로 경례를 받아본다는 김성수 이등병도 하루지만 후배를 맞이한 기쁨을 감추지 못한채 신명나게 군생활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한다.

"저희부대는 유사시를 대비해 항상 예비훈련에 총력을 기울인답니다. 특히 수색부대라는 특수임무를 부여받은만큼 그 임무에 걸맞는 훈련도 쉴틈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선봉 수색부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큽니다." 김성수 이등병은 소속부대에 대한 자랑이 계속됐다.

이렇게 현역군인과 장애인들이 결연을 맺고 그동안 알고 싶었던 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면서 어느새 내무반은 훈훈한 정담으로 가득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나산사 주지)은 지난 8월26일 오전10시 제1799부대 수색중대(중대장 김재열)에서 지체, 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 총 31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가운데 '신고합니다! 장애인 1일 병영체험'을 마련했다.

군에 가고 싶어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병영생활을 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병영체험은 김현철씨(23, 지체장애 3급)의 입소신고식을 시작으로 끔에 그리던 1일 병영생활에 들어갔다.

입소식을 마친 장애인들은 가을을 재촉하는 장대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펼쳐지는 부대원들의 태권도와 낙법, 격파, 약속겨루기 등 특공무술 시범을 지켜보며 함성과 갈채를 보냈다.

이번 병영생활에서 가장 장애인들의 인기를 모았던 프로그램은 직접 참여하는 화생방훈련(방독면 착용), 수류탄 투척, 사격술 예비훈련, 총기분해결합.

"화생방전쟁이 발발하면 1분안에 방독면을 착용해야 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대장 박근철 중위가 방독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자 갑자기 장애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에게도 방독면이 지급되니까 걱정은 마세요. 하지만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어야 겠지요." "네, 소대장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소대장의 말이 떨어지자 마자 황부기씨(21, 중복장애 1급)는 방독면 착용방법에 대해 서투른 발음으로 질문공세를 폈다.

방독면 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켠에서는 수류탄 투척훈련과 사격술 예비훈련이 이어졌다.

비록 연습용수류탄을 이용한 훈련이지만 실전 못지않게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훈련모습은 현역군인 이상으로 진지했다.

"생각보다 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진지합니다"라고 말하는 현역 김 호상병은 "장애인들과 함께해 보니 처음에는 낯설고 거리낌도 있었으나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보니 오히려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비장애인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경험 얻었다고 말하는 장애인들은 중대원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오후 5시 퇴소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복지관측은 "비장애인들과 함께함으로써 소외감, 열등감에서 벗어나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연례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속초=김중근기자

종교시설
경사로·출입문 안내표지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복지부, 9월중순 입법예고 국회상정키로

사찰 기도원을 비롯한 종교시설에 경사로, 장애인출입문, 안내표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종교 및 문화시설을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 신축건물에 경사로 출입문 안내표지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화한다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9월중순 입법예고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가 준비중인 법률(안)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건물을 제외한 대지 1천㎡(3백30평)이상의 사찰 신축건물에 98년부터 의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찰을 제외한 종립학교 불교병원 등의 공공시설은 기존건물이라 할지라도 2년안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부칙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종립 초·중·고등학교와 불교병원, 진흥원등의 교계시설 등은 오는 99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법률(안) 마련은 95년 1월1일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행정당국의 집행의지 미비와 위반시 50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등 처벌규정이 미약해 규칙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장애인 및 복지관계자의 지적에서 비롯 됐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은 보건복지부령보다는 설치 및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건물주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료제출과 보고요구 불응시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정명령 불이행시 지방세법에 의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복지
곽정용씨 역도 '金'
김종길씨 사이클 '銀'
애틀랜타 장애인올림픽 한국 종합12위

제10회 애틀랜타 장애인올림픽이 10일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지난 8월25일 폐막됐다.

21개국 3천5백여명의 선수와 임원단이 참여한 이번 장애인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은 금13 은2 동15개를 획득,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 이어 종합 12위를 차지했다.

13개종목에 64명의 선수가 출전, 탁구 양궁 역도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국선수단 중 불자 소아마비장애인 곽정용씨(32)가 남자역도 48㎏에 출전해 165㎏을 들어올려 세계타이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김종길씨(30 뇌성마비)가 사이클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애틀랜타장애인올림픽에는 장애인전국체전과 세계장애인체육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와 우수기록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출전했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수행승의 장 *
모든것을
자제하는 수행승은
온갖 괴로움에서
해탈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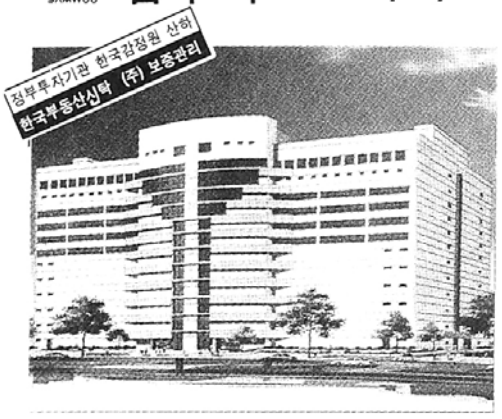
이 향 원



황금 역세권 內 전문 도매상가
실투자액 5000만원선 (무담보융자 3천만원)
⇨투자 1년후 2-3억 형성예상

SAMWOO 삼우텍스프라자

정부투자기관 한국감정원 산하
한국부동산신탁 (주) 보증관리



13F	수영장, 골프장
12F	이벤트홀, 사우나
11F	전문 식당가
7-10F	창고, 사무실
5-6F	부 자 재
B1-4F	원 단
B2-B5	주차장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장받는 핫 - 포인트

◈ 공인회사인 한국부동산 신탁(주) 수탁관리로 안전투자 보장
◈ 국내 최대의 의류도매상가 밀집지역에 전문상가로서의 독점성 때문에 최대의 투자가치 창출
◈ 완벽한 주차시설(1500대 동시주차) 및 지하철 6호선 동묘역이 본건물과 직접 연결되며 1,2,3,4호선이 인접해 있는 등 입지여건 최적
◈ 저렴한 분양가 (주변상가 50%수준)와 회사보증 3천만원 융자로 5천만원이면 내점포마련 절호의 기회(노후대책 최적)
◈ 유통사업본부 가동으로 365일 TV융단 홍보 및 4계절 이벤트 행사로 상가 조기 활성화

상담역 (02) 273-6225 실장 이대희

성원사 대웅보전 회향 만등불사 대법회

금번 저희 성원사에서는 그간 3여년간의 대웅보전 불사를 회향하옵고 아울러 **만등불사 대법회**와 **합동영가천도제**를 겸하여 봉행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수승한 인연공덕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강원도 철갑산 성원사
대중일동

■ 일시 : 병자년 양력 9월 8일(일), 오전 10시
■ 장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성원사 대웅보전
■ 연락처 : (강릉) 0391-661-5736 (5726)
(서울) 02-784-3439, 02-993-5781
(부산) 051-241-6223(성임미용실)
051-632-0383(금강정진회)



출판 화제

서암스님

법어집 '위대한 자기발견' 출간



생활속의 참선을 설하는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의 두 번째 법어집 〈위대한 자기의 발견〉(정토 刊)이 나왔다.

지난 4월 출간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서암스님의 법어집 〈훨훨 털고 같이 가세〉가 '참선 입문서' 역할을 했다면, 이번 법어집은 '참선 수행의 길잡이'란 부제처럼 참선·독경·관법수행 등 생활선의 실제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마음을 비우는 공부에 대해서', '참선에서 일어나는 잡념을 떨치려면', '평상심을 유지하는 마음가짐', '연기관·수관(水觀)·해골관·태양관에 대해서', '수행의 올바른 점검에 대해서' 등 구체적인 자기 발견의 길이 자상하게 묘사되어 있다. 세수 83세, 법랍 65세 서암스님은 언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손수 공양을 만들어 드시는 소박한 수행생활로 선승의 사표가 되고 있다.

성일스님

경험토대 '신도포교지침서' 발간



경기 화성군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장인 성일스님이 〈신도 포교 지침서〉 상(上·연중행사 편)을 펴냈다.

24년간 원력을 기울인 포교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포교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사찰에서 행하는 연중행사의 안내문으로부터 행사 진행, 설법 문안까지 자세하게 참고가 되도록 했다. 해마다 1천여명 이상의 수련원생을 배출하고 있는 성일스님은 그간 포교지침서로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를 펴낸 바 있다. 스님은 신흥사 포교 20년 결산으로 〈신도 포교 지침서〉 하권(특별행사편) 발간과 함께 이 세 가지 포교지침서를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할 계획이다.

'경전의 성립…' '불교철학사' 번역

시공불교총서 3·4권 무게 있는 불교학술서 2권이 동시에 번역 출간됐다. 시공사의 시공불교총서 제 3, 4권 〈경전의 성립과 전개〉(미즈노 고젠 저·이미령 역) 〈불교철학사〉(D.J. 칼루파하나 저·김종욱 역)가 그것. 〈경전의 성립과 전개〉가 원시불교 경전에서부터 한역경전까지의 성립과 유포를 다룬 경전 성립사라면 〈불교철학사〉는 경전의 내용에 해당하는, 초기불교에서 후기불교의 전통과 관련된 증요학파나 불교학자들에 대한 철학사적인 연구서다.

〈경전의…〉는 경전의 언어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 서사(書寫)했는가, 대승경전은 불설인가 비불설인가 등 경전과 관련한 다양한 의문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불교의 성립부터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표가 돋보인다. 〈불교철학사〉는 불교 태동 이전의 인도철학이 지닌 절대주의적인 성격과 불교의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대비시켜 인식론 존재론 윤리학 논리학 등을 설명하면서 초기불교가 취했던 중도적인 입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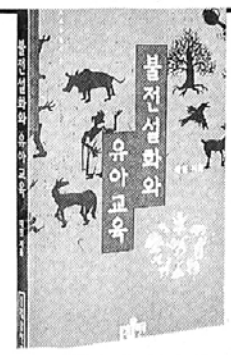
한국문화재 수난사 일제 약탈등 수록

문화재위원이자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인 이구열 한국근대미술연구소장이 〈한국문화재 수난사〉(돌베개 刊)를 출간했다. 지난 73년 저서 〈한국문화재 비화〉를 통해 일본인에 의한 문화재 약탈사실을 고발해 일본사회에까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구열씨가 새로운 자료를 보완, 제목을 바꿔 낸 것.

일제하에 현해탄을 넘나든 시련의 경천사탑, 석굴암에서 사라진 오층소탑, 불국사 다보탑의 돌사자 도난 등 불교문화재의 훼손·도난 사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관심을 끈다.

"부모가 읽어주는 불교동화 아동 인성교육 첫걸음"

대원스님, 유아교육서 '불전설화와…' 펴내



유아를 위한 불교 교육용 교재이자 연구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됐다.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교수인 대원스님이 쓴 〈불전설화와 유아교육〉(불광 刊)은 불교 유아교육 분야의 국내 첫 저작물이다. 그간 불교문학과 유아교육 분야의 연구서와 논문들은 다수 나왔으나 두 분야를 하나로 묶는 연구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은 〈자타카〉 등 교훈적이고도 재미있는 불전설화를 유아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아동기의 종교적·도덕적 품성이 5~7세를 전후한 시기에 가장 발달하기 때문에 최초의 교사인 부모들의 '불교동화 읽혀주기'가 자녀와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시급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는 불교 유아교육의 첫걸음인 동시에 인성교육의 토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



이 책은 불전설화의 종류와 기원, 동화적 특성, 주제 및 인물유형, 사건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과 아동학 전문가들에게 의뢰, 〈자타카〉 547편 중 의미가 큰 65편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타카〉는 대부분 전래동화가 지니고 있는 도덕성의 주제, 즉 인과응보·인내·지혜·이타적 행동 등으로 이뤄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세계 최초의 동화집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타카〉의 유아교육적 가치는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민담을 비롯한 설화의 동화 재화(再話)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자타카〉에 대한 재화작업이 전체 불전동화 가운데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타카〉를 비롯한 불교동화가 일부 출판되고 있지만 아직 경전 번역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교육 현실에 맞는 주체적인 재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유아들이 읽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원스님은 "불교문학·종교 교육학자들이 참가하는 불교유아교육 분야의 연구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인 동화 재화작업의 활성화 및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현실 적용과 교육효과 측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스님은 또 동국대나 중앙승가대학에 불교유아교육학과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지난 86년 개설된 동국대 불교아동학과가 전국 3백여 불교유치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과, 100%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범계열의 유아교육학과와는 달리 비사범계열이라 50명 정원에 15명(30%)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현실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 이는 유아교육학과 출신의 70%이상이 기독교 성향의 유치원교사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발등의 불임이 분명하다.

김재경 기자

'자타카' 인과응보·지혜등 도덕성 결집

"불교유아학과 개설·재구성작업 서둘러야"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학	좋은인연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기도	일 타	효 림
4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5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6	한국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전원문화사
7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8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9	전생여행	김 영 우	정신세계사
10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즐겁다	편 집 부	정 토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그 마음을 바쳐라'



류 종 민
(중앙대 교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다 제 몫을 열심히 하다가 가지만 정말 값있고 밝게 제 몫을 다 하고 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김재웅법사(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는 그중의 한 사람이 분명하다. 스승 백성욱박사님이 그렇게 만드셨지만 스승을 공경하는 그 지극한 마음이 본인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으리라. 스승께서 모든 이를 다 부처님으로 보라고 하셨지만 무엇보다 스승을 부처님으로 모셨기에 부처님 시봉하는 일로써 그 일은 가능했을 것이다. 〈그 마음을 바쳐라〉(용화 刊)란 제목의 이 책은 스승께서 일러주신 이 시대의 가장 간명한 수행법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연구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닦는 방법중에 이렇게도 간명한 방법이 있는가 놀랄 것이다. 이미 이책은 〈닦는 마음 밝은 마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의 후속편이기에 그 전의 책을 읽은 사람이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언구이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실제로 어떻게 바치는가, 그 바친 결과는 무엇이며 어떠한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근원적으로 밝아 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역사적 실제에서, 생활의 실제에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큰 단위의 안목과 순간 순간의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쉬운 일화와 언어로 자세히 일러준다. 그 마음을 바쳐 비우지 못하고 남겨둔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며 마음을 닦는다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게 한다.

'그 마음을 바쳐라'는 일상의 모든 일에 한 마음을 닦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와 병행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기운으로 부터 〈금강경〉을 독송하여 반야의 지혜를 밝히는 금강경독송회의 수행과 지도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김재웅법사는 전력을 다하고 있다. 나라의 재앙중에 가장 어두운 기운의 폭발이 전쟁인데 이것도 밝은 기운으로 소멸할 수 있다고 믿어 전방의 병사와 부대에까지 오래전부터 배포되었던 〈금강경〉과 함께 이 책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널리 읽혀 왔던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의 뒤를 이어 전문적으로 마음닦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엮게 되었다고 하며 "자기 마음 다스려서 가정과 직장, 세상의 화목을 이루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서두에서 말하고 있다.

한 국가와 국민의 문화적 척도는 그 정신과 마음이 얼마나 순숙해 있으며 얼마의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물질의 생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에 보여진다고 생각한다.

〈그 마음을 바쳐라〉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앞으로 올 시대의 삶을 진정 밝고 풍요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으면 한다.

"자기 다스려 세상화목 이루는 마음닦는 직접적인 방법 제시"

화제의 책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화스님 지음

난해한 '유식 30송' 일상에 쉽게 접목



'유식(唯識)불교'는 일반인들에겐 난해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펴낸 정화스님(부평 토굴에서 정진중)은 세친보살의 〈유식 30송〉을 명쾌하게 풀어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유식의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 따르면 '유식'은 '앎이 곧 삶'이라고 가르친다. 앎은 삶의 진솔한 모습이며 열린 세계라는 것이다.

또한 '유식성(唯識性)'이란 '현전(現前)하는 부처', 곧 '우리 자신들'로서 우리 자신이 부처임을 나타낸다.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활동하는 매순간마다 그대로 부처님 자신이며, 유식성 그 자체라는 것. 즉 〈유식 30송〉은 유가 수행자들이 삶의 고정된 틀로부터 벗어나 진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설한 가르침 중의 하나라는 설명이다.

〈장경각 8천원〉

불교경전속의 수사학적 표현 고영섭 지음

경전속 비유화법 보편언어화 시도



〈불교경전의 수사학적 표현〉의 저자 고영섭(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씨는 "출세간적인 삼장(三藏)의 언어를 세간적 언어로 환원시키는 일이 불교사상을 보편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서양 수사학의 비유(比喩)에 상응하는 불교경전 속의 비유의 화법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분석, 불경의 '시대에 맞는 보편적 언어로의 표현'을 모색한다.

고씨는 불경은 화자의 메시지를 받는 청자의 삶속에 배어있는 주어(주체)를 환기·복원시키는 화법을 사용함으로써 청자를 화자로(능동적으로) 살게 하는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저자는 한국어 문장에 있어서의 주어의 복원을 통한 통찰력(禪)과 문장력(敎)의 조화로운 만남, 문어와 구어의 벽허물기라는 '활달한 한국어의 구사'를 요청한다.

〈경서원 1만2천원〉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1부
금강경 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는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따스한
이야기가 봄 햇살처럼 가득합니다.

2부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줍니다.

금강경독송회 엮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 백 선생님 법문에 -

그 마음을 바쳐라

신국판 267쪽/ 값 7,500원

요한 이고

-우학스님 수필집-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이 시 대 베스트셀러

-나오는 내용-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강원·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잉꼬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좋은인연 책들-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신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반야심경·법성게·화엄경약찬게·예불문·아미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으신 불자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배필을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대주,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법회장이나 불교음악회에 가면 으레 들을 수 있는 불자들의 애창곡 '우리도 부처님같이'이다. 불교음악회가 열리면 이 노래가 거의 선곡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연주되면 객석에 앉아있는 모든 대중들이 저절로 이 노래를 따라 부른다. 이 곡을 작곡한 이가 이달철씨(42, 대구 심인중학교 음악교사)다. '우리도 부처님같이'가 널리 알려져있는데 반해 작곡가로서는 비교적 교계에 생소한 그가 이번에 진각종 종조(宗祖)인 회당 손규상 대종사의 생애를 주제로 한 45분짜리 교성곡 '회당'을 완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각종 신도인 한보살님의 위촉으로 작곡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이 나타내기를 꺼려 누구인지조차 모르지만, 가정적·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울 때 진각종에 입문 부처님께 의지해 이제는 마음과 가정의 행복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해결하셨다는 그 보살님이 고마움의 심정을 진각종 창종 5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으로 남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건물불사에 동참하는 신도들은 많으나 익명의 이 보살처럼 음악불사로 회향하는 이는 처음이라 더욱 작곡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이씨는 "종조님 이야기를 평소 많이 들었습니다. 회당 종조님은 뛰어난 인품과 해박한 지식을 지녔고, 어느 누구보다 수행에 철저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겸손해 한다. "지금까지 불교음악들이 대부분 피아노 반주에 맞춘 노래에 치우쳐와 비교적 단조로웠는데 오케스트라를 반주로 하는 대규모 불교교성곡으로는 첫 작품인 '회당'으로 불교음악의 영역을 넓히고 수준높은 음악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인다. 작사는 시인인 장지현씨(진각종 LA 불광심인당 주교).

'회당'은 모두 4악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악장 탄생 2악장 깨달음 3악장 교화의 빛 4악장 열반으로, 대종사의 젊은 시절의 고뇌와 방황, 깨달음의 과정, 회당대종사가 민중을 교화하는 진각종 창종 초기와 민족의 시련기인 6·25, 그리고 열반에 드는 전 생애가 드라마틱한 교성곡으로 표현된다. 2백여 연합합창단과 70여명 오케스트라가 동참해 진각종 창종 50주년이 되는 내년 기념일에 정식으로 초연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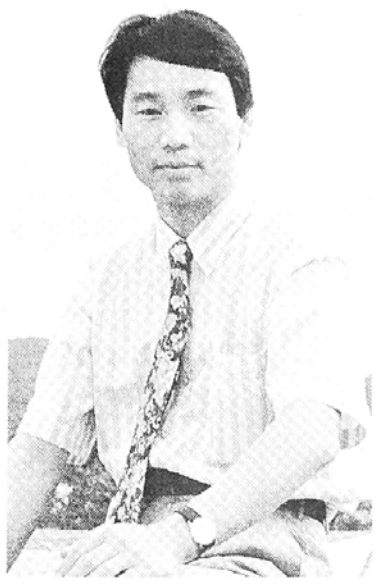
지금까지 이씨가 작곡한 찬불가는 대략 20여곡. 대표곡 '우리도 부처님같이' 외에 사찰도량 헌공식때 부르는 '헌공불사의 노래'와 불교방송개국기념 전국 찬불가경연대회서 금상을 받은 '사월이라 초파일은'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경숙 기자

손규상 대종사 생애 음악으로 조명

오케스트라 교성곡 '회당' 완성한 이달철씨

내년 진각종 50주년 기념일에 공연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 20여곡 작곡



◇진각종 창종주인 회당 손규상대종사의 생애를 교성곡화한 이달철씨. 폭넓은 인기를 끌고있는 찬불가 '우리도 부처님같이'의 작곡가이다.

원성스님 '동승전' 천진불심 볼 기회

13~22일 백상기념관서 … '선방' 등 100여점 전시

승가의 일상생활속에 스며있는 치열한 구도행이 해맑은 동자승으로 형상화돼 천진불심(天眞佛心)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가을 초입을 장식한다.

지난해 특유의 화풍으로 그린 동승그림을 선보여 연인원 1만5천여명이 보고 가는등 큰 반향을 일으킨 원성스님(중앙승가대 복지학과 2년)이 한국일보사 기획展으로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백상기념관에서 '96 동승전'을 개최한다. '그리울 때면' '꿈' '선방' '삼경 종소리 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등과 부처님일대기가 맑고 천진하면서도 익살스런 동승의 모습으로 표현된 1백여작품이 전시된다.

"그림으로 전법하고 싶습니다. 동승의 여러 모습을 통해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전하고, 수행자의 구도의지와 불립문자 언어도단의 경지를 이심전심이 되듯 자연스럽게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성스님은 종이재질과 채색을 이용한 여백의 미를 한층 살려 동승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통해 수행자들의 선적 세계를 구체화했다. 자연과 소나무 꽃 산 하늘 등 자연과 인간의 결합을 자유분방한 조형언어로 창출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님도 상징화하고 있다.

미술평론가 선학균씨는 "스님의 그림은 필선의 리드미컬한 유연성에서 고도의 수련을 인지할 수 있으며 화면구성의 짜임여백을 통한 공간감, 화면위에 해학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장면의 순간적 포착과 그림속에 쓰여진 제화시(題畵詩) 등은 이 시대를 사는 한 작가의 역량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며 "동승전을 통해 대중들의 눈빛으로 어둠에서 밝은 감성을 일깨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작품속 동승의 모습에서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천진불심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한다.

"그림을 보고 부처님마음을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신을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원성스님은 서울전시가 끝나면 오는 10월 4~14일엔 대구 삼성금융플라자에서, 10월 25~27일엔 부산 시민회관에서도 각각 전시회를 갖는다. 〈숙〉



◇원성스님作 '마음 한 점 고요하니 無明은 사라지고'.

불심시심 〈61〉

신선이 노닌 못

仙遊潭在海山幽 (선유담재해산유)	선유담 바다 산 깊은 곳에 있어
跨鶴仙人幾歲遊 (과학선인기세유)	신선은 학을 타고 몇 해나 놀았나
石痕至今留藥臼 (석흔지금유약구)	돌 틈에 지금까지 남은 약 방아터
靈源從古暎銀鉤 (영원종고영은구)	신령한 물줄기 옛부터 은고리인 양 빛나다
煙簷暗溜晴還雨 (연롱암유청환우)	아지랑이로 감싸인 물방울 개었다 비가 되고
涼侵深松夏自秋 (량침심송하자추)	깊은 솔숲 침입하는 서늘한 여름날도 가을
誰借長生丹法去 (수차장생단법거)	누가 장생술의 연단법을 빌려갔기에
滿甁寒月照淸球 (만병한월조청구)	병에 가득히 싸늘한 달 맑은 옥으로 비추네

위 시는 풍계대사의 관동팔경 중에 있는 〈선유담(仙遊潭)〉이다. 못의 이름이 말하듯이 신선이 논 못이다. 그러기에 시의 내용도 신선에 관한 소재로 일관되어 있다.

바다와 산이 맞닿은 곳에 있는 못이다. 이름은 선유담이지만 신선은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놀았던 신선이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니 그 놀았던 세월은 언제였던가. 선인이 여기로 내려왔다면 무엇을 타고 왔을 것인가. 그는 분명 학을 타고 왔을 것이고, 다시 학을 타고 갔을 것이다.

신선에게는 장생불사의 영약이 있다 하니, 지금 저 물틈에 보이는 흔적은 그들이 이 선약을 장만하던 절구터임이 분명하다. 세속에서 신선을 동경하는 가장 큰 이유도 어쩌면 이 장생의 영약을 복용할 수 있다는 신비성에 있을 것이니 절구 모양으로 패인 바위만 보아도 신선의 영약을 연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못이 있기 위해서는 못을 형성하는 물 근원이 있어야 하니, 이 신선이 노닐 수 있는 못의 물 근원이라면 그 연원 또한 신령할 것이요, 그 신령한 근원은 예사로울이 아니기에 저 은하수의 근원에서라도 찾아야 할 신령함이다. 지금 이 선유담의 수원은 이러한 신령의 근원에서 시작되었다.

아지랑이로 휩싸인 숲 속의 물방울 개이는 듯 하다가도 다시 이슬비처럼 촉촉히 숲을 적시고, 깊은 솔숲에서 이는 서늘한 바람은 아무리 더운 여름날이라 하더라도 여름이 아닌 가을날의 서늘함이다. 시에서 보인 '저절로(自)'라 한 한글자가 참으로 매력적이다. 여름이 저절로 가을이 되어 싸늘한 것이다. 역시 신선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용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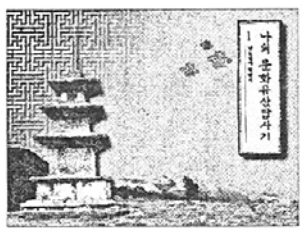
신선의 놀음이라 한다면, 무어니 무어니 하여도 장생의 영약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선유담에는 약방아의 흔적만 있을 뿐 약은 없다. 누가 이미 빌려간 것인가. 왜 빌려갔다 하였을까. 빌림은 갚음이 전제된 것이니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약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음이다.

어찌되었건 오늘 밤의 선유담은 싸늘한 달만이 비쳐주는 청초함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역시 신선은 달밤에 학을 타고 내리는 기대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CD롬 나왔다

퀵타임 VR기법 국내 첫 사용
화면 동화상처리 현장 직접 간 듯



범국민적인 문화유산 답사붐을 조성한 스테디셀러인 유홍준교수(영남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창작과비평사 刊)가 멀티미디어 CD롬 타이틀로 출시됐다.

한글과컴퓨터(대표 이찬진)는 최근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멀티미디어 타이틀로 재구성해 CD롬으로 제작, 시판에 들어갔다. 이 타이틀은 답사기를 CD롬 타이틀로 제작한 최초의 상품이다.

한글과컴퓨터가 유홍준교수의 감수아래 1년여에 걸쳐 원작에 실린 현장을 답사하고 촬영한 이 제품은 動화상과 음악가 김영동씨의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 MBC '인간시대' 해설자로 유명한 김도연씨의 차분한 해설을 곁들여 책에서 미처 표현하지 못한 부분까지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기법중 하나인 '퀵타임VR' 기법을 국내 최초로 사용, 마치 사용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인물 유적 역사 등에 관한 1백70여점의 관련사진을 수록한 용어해설도 제공한다. 지도를 보면서 직접 답사할 곳을 마우스로 선택하는 방식도 편리하다.

이 타이틀은 486DX2 이상의 PC와 사운드카드, 256컬러 이상의 그래픽카드 및 CD롬 드라이브가 필요하며 PC운영체제로 한글 윈도우 3.1 및 윈도우95에서 작동된다.

값 4만원. (02)632-4105.

문화소식

사진으로 보는 북한사찰

사찰과 불상등 북한에 소재한 주요 불교문화재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12일까지 경복궁 전철역 전시장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사진전에는 보현사대웅전, 팔각13층석탑, 석왕사 조계문, 불일사 5층석탑, 청동약사여래좌상 등의 주요 불교문화재를 포함 총 1백여점의 북한문화재 사진이 전시 되고 있다.

이윤자씨 '춤-화두' 공연

이윤자씨(부산대교수)의 춤-화두 공연이 오는 5일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춤-화두연구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전 3막 8장으로 모든 언어와 상징을 넘어서 큰 깨달음인 마하무드라를 표현하는 무대가 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인 이윤자씨는 "마하무드라는 인도의 수행자 틸로바가 깨달음을 얻은 후 티벳으로 건너가 제자 나로빠를 위해 읊은 내용을 말하며 이중 십송을 풀어 춤과 나 절대자유를 향하여 마음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번 공연의 의미를 밝혔다.

홍기삼씨 '문학사와…' 출간

홍기삼교수(동국대 한국어문학부)가 한국문학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통해 우리문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 〈문학사와 문학비평〉을 펴냈다(해냄출판사 刊).

이 책에서 홍교수는 비평적 관점에서 문학사기술의 원칙들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 가와 전통단절론에 대한 이론적 극복과 함께 그것을 실증적으로 지원하는 텍스트 해석의 구체적인 제공이라는 문학사적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진각종 의례용 CD 제작



진각종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신행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서원가(법요의례용) CD를 제작 배포한다.

대구 금강합창단(지휘 배해근)이 녹음한 이 CD에는 삼귀명 오대서원가 종조열반찬의 노래 보현행원 등 총 18곡이 수록됐다. 진각종 산하 신행단체에 무료배포 (02)913-0751

절터최적지
장소 : 경남 하동군 횡천면 하동 진주 사이 지리산 줄기, 양질의 지하수 도로, 토목공사 완료
평수 : 11,460평 (평당 10,000)
연 락 처 0346)594-4974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북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단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단집, 범성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단집외 등
구로동 원응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단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011-266-6485

학생모집
◆포교교육과 … 통양종교, 종교음악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법사·유아놀이사·상담사)취득가능
2. 소형 버스 통학 가능
3. 충북 괴산에서 월2회 강의 (교육청인가 57호)
TEL.02)931-6075~6
만대교학대학원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범당 수미단 응각 목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판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 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준 012-210-1401
通貴王 합장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 (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을지로 2가)
전화 : 02)266-2629 ,팩스 : 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전원주택 부지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 준농림(전+답) 평수: 114평(전용허가필)
• 정남향(집앞가지 포장완료)
• 서울에서 현재 1시간 10분거리
• 포근하고 아늑한 전천후 전원마을
• 금액 : 2900만원

투자성 좋은 전원주택지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 지목: 준농림 전 평수 : 155평(전용허가필)
• 마을앞 전방 150m에 강이 흐름
• 서울에서 1시간 10분거리
• 투자성이 매우 좋음
• 금액 : 3,700만원
전원주택 전문업체 청산
연락처 TEL : (02) 420-5474~5 FAX : (02) 413-7295 B. B : 012-272-0025 불자 안태진 합장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종단소식

4년제 동방불교대학 설립신청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최근 재단법인 태고학원을 설립한데 이어 (가칭) 동방불교대학교를 4년제 단과대학으로 하는 대학설립허가신청서를 지난 8월30일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에 접수했다.

태고종은 오는 9월 30일 대학설립허가를 받은즉시 경기도 용인 2만여평 부지에 제반 시설공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동방불교대학교 설립을 준비중인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1차로 불교학과 1개과로 시작하고 이어서 불교미술과(불화과) 불교음악과(범패과)등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성북동의 현 동방불교대학은 교양대학형태로 존속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변 심인당 설치등 해외포교 박차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이 창종 50년을 기점으로 해외포교불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락혜통리원장등 해외포교조사단은 지난 7월 중국의 연변지역을 방문하고 아성시 연길포교소를 연길시로 옮겨 심인당으로 승격시킨다는 방침을 확정, 부지물색을 위해 지난 23일 건설부장 대경정사를 중국현지에 파견했다. 진각종은 심인당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0월경 헌공불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미주지역 포교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락혜통리원장 혜인재무부장이 지난 8월23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불광심인당(주교 지현정사)등 LA일대를 방문했다.

천태종 간부 2천여명 하안거 참석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지난 8월23일부터 25일까지 총본산 구인사 관성당에서 2천여명의 각 말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44회 하안거 간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간부교육에서는 '불교의례'(강사 춘광스님) '불교신행과 포교방법'(한정섭법사) 등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96년 총무원 각 부서 하반기 종무지침이 하달됐다.

삼광사봉사회 재소자 생일법회

천태종 부산 삼광사봉사회(회장 김중고)는 지난 8월21일 부산교도소 8월 생일불자 51명을 초청, 재소자 생일축하 법회를 개최했다. 법회후 삼광사봉사회는 생일불자들에게 점심공양을 제공하고 2시간동안 생일축하 여흥을 펼쳤다. 이번 생일축하법회가 11회째인 삼광사봉사회는 재소자들에게 생일축하선물로 고급수건을 전달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열반의 깨달음으로 성불하라고 당부했다.

방송가 소식

불교 대구방송 12일 시험전파

불교대구방송이 개국에 앞서 오는 12일 시험방송을 실시한다.

부산, 광주에 이어 지방국으로는 3번째로 개국하게 되는 불교대구방송은 이번 시험방송을 필두로 개국까지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불교대구방송의 시험방송은 FM주파수 94.5MHz를 통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하루 4시간 방송된다.

태국, 드라마 '아리랑' 인기리 방영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태국 참전장교와 한국 소녀와의 사랑얘기를 그린 태국 〈TV채널 5〉의 일일드라마 '아리랑'이 태국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드라마는 전란의 와중에서 만난 남녀의 국경을 넘은 안타까운 사랑이야기. 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부상을 당한 타국인 장교가 야전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인 시골소녀와 사랑에 빠지지만 휴전후 애인이 기다리는 태국으로 돌아가고 그를 잊지 못하던 소녀는 사찰에 들어가 수도승이 된다는 게 드라마의 줄거리다.

지난 8월1일 처음 방송돼 25%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이 드라마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여동안 방송될 예정.

각본은 현지 영화감독 재즈시암과 태국왕실 번역가출신의 한국인 최혜자씨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팔만대장경 이운뱃길 답사

해인사 승가대 학인스님 32명 강화서 고령 장경나루까지

세계유산등록기념 '가치 일깨우기' 일환 "불경새긴 선조들 불심-호국의지에 감탄"

강화에서 판각된 고려 팔만대장경이 경남 합천 해인사까지 옮겨지는 데 해로(海路)가 이용됐다는 것은 거의 정설로 굳어진 상태. 팔만대장경이 제작된 강화에서부터 대장경이 배에 실려 도착한 고령 장경나루까지의 뱃길 이운경로를 해인사승가대 학인스님 32명이 지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그대로 직접 답사해 화제를 모았다.

해인승가대 교지 '수다라(편집장 본학)' 편집진들이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수다라역사탐방'의 일환인 이번 답사는 올해가 세번째. 팔만대장경 이운경로를 찾게된 취지는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기념함과 동시에 팔만대장경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

이번 답사는 지난 8월 28일 육로나 해로로 먼 길을 온 팔만대장경이 도착했던 공통 지점인 고령군 개진면 장경나루에서부터 출발했다. 개진포는 원래 이름이 개경포(開經浦). 이름에서부터 경관을 살려나른 역사적 사실을 알수 있는 곳. 이곳에서 스님들은 머리에 소중하게 이고 경관을 나른 먼 옛날 민초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시 감회에 젖었다. 저녁에는 관각성지로 유서깊은 강화 선원사에 도착했다. 복원추진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성지 복원에 들어간 선원사에서는 1배(拜) 1자(字)판각의 성스러운 호국의지를 가장 첨예하게 느낄수 있었다.

29일에는 유명한 포구였던 영광 법성포와 선운사를 들르고 30일 목포 해양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김용환 박물관실장의 안내로 해양박물관을 돌아본 스님들은 이원식소장(고대선박연구소)의 설명으로 고려시대 배의 모양과 역사, 대장경이 어떻게 실려 옮겨졌는가 등에 대한 이해를 더했다. 이어 남해 관음포와 화방사에 도착. 천연기념물 산다나무가 자생하는 이곳은 분사도감이 설치, 대장경의 판각과 인경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유추되는 곳이다. 이곳을 둘러본 스님들은 남두석씨(전통서각연구가)의 지도로 잠시동안 판각 및 인경작업을 하며 그 옛날 경전을 한자한자 새긴 선조들의 불심과 호국의지를 헤아려보기도 했다.

답사에 참가한 성원스님('수다라' 편집위원)은 "대장경이 이운된 경로를 따라 역사적 사실을 직접 확인케 되니 감격스럽고 선조들의 깊은 불심에 그저 감탄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엄앵란씨—자전에세이 발간
진송남씨—신곡 '더하고 빼고' 발표
김민종씨—2번째 솔로앨범 마무리


◇엄앵란씨


◇진송남씨


◇김민종씨

불자연예인 가을걷이 '한창'

책출간, 신곡발표 등 가을을 맞는 불자연예인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환갑을 맞은 왕년의 여배우 엄앵란씨가 자전에세이 〈엄앵란 뜨거운 가슴에 좌절이란 없다〉(형선 刊)를 펴냈다. 어린시절부터 최근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남김없이 털어놓은 이 책에서 엄씨는 무슨 이야기라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관안한 아주머니'로 변신했다. 책출간 이외에도 엄씨는 KBS라디오 '엄앵란 강남길의 행복만들기', KBS-2TV의 '엄앵란 이택림의 사랑방', '아침마당'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MC로서 전문 방송인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또 진송남씨 부부와 탤런트 김민종씨도 신곡발표와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달전 트로트풍의 새 노래 '더하고 빼고'를 발표한 진송남씨 부부는 이 노래가 요즘 방송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자 더욱 신이나 있다.

김민종씨도 현재 영화 '귀천도', SBS-TV '폭풍속으로', KBS-2TV '머나먼 나라' 등에 겹치기 출연등 눈코 뜰새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2번째 솔로앨범 작업에 열을 올리며 만능엔터테이너임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일 새 앨범에는 영화 '귀천도'의 주제곡을 타이틀로 보다 강하고 터프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음악들이 담겨질 예정이라고. 〈은〉



'동국TV 불교아카데미' 개강 동국TV불교아카데미가 지난 2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첫날 1교시는 동국대 권기종교수가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2교시에는 이기영박사가 '인도불교의 흐름'을 강의했다. 동국TV불교아카데미는 매주 월·화요일 오전 9시(순환방송 오후 2시10분)에 방송된다.

선우도량이 지난 1월 '사찰운영의 현대화를 위한 방향모색'이라는 기획좌담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사찰이 지니는 의미, 사찰운영의 문제점, 사찰운영의 현대화를 위한 방안모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데 이어 오는 16~18일 2박3일 일정으로 실상사에서 제11차 수련결사를 개최, '미래사회와 사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구체화한다.

미리 가보는 선우도량 수련결사

16~18일 실상사…법등·영담·현고스님 주제발표

○…'사원경제의 합리화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서는 법등스님(도리사주지)은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금년 103억원에 이르는 종단예산의 운영현황과 조계종단 소속 1천7백83개 사찰중 공찰 8백23개 사설사암 960개의 소유부동산 2억 천7백만평(93년기준)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문제와 매각, 투자와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등 종단의 재무행정체계와 부동산관리현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법등스님은 사찰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가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사중공의제를 통한 사찰재정의 투명화와 생산적인 활동을 통한 사찰의 경제적 자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찰회계 및 예·결산은 '호주머니 속 재정운영'에서 탈피해 정당한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사찰의 장부를 정비하고, 예결산의 절차에 따라 재정운영을 해야한다고 덧붙이고, 사찰회계 및 부동산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등스님은 맺음말을 통해 "오늘날 사찰운영에 필요한 승가상은 신도대중의 신앙적 귀의처가 될 수 있는 수행자와 사찰경영자의 역할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지도자가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제2발제자 영담스님(석왕사주지)은 부천 지역내에서 사찰을 운영하면서 익힌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영담스님은 "지방화시대로 이행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불교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운동을 적극적으로 견인해내야 하는 것은 시대적요청"이라면서 사찰이 지역내에서 위상고양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지의 안정된 임기보장과 인사고과제를 통한 교역직 종무원의 업무효율강화 △사부대중의 신뢰가 바탕이 된 사원경영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선결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사찰의 수행 환경 보존과 대중포교'에 대해 발표하는 제3발제자 현고스님(송광사주지)은 사찰조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삶의 환경으로써 사찰조형 △수행환경으로써의 사찰조형이라는 맥락을 통해 모색하고, 사회변화에 대한 사찰의 위상과 기능변화에 대해 발제한다.

도필선 기자

사찰재정 투명화방안 모색

재가 참여하는 '사중공의제' 검토해야
지역사회 참여등 불교역할론 강조

목탁소리

대선바람과 원로스님

정성운 〈취재1부 기자〉

불교계에도 대선바람이 불어닥친 것일까.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지난 8월 중순 해인총림 방장 혜암스님의 법문을 실은 소책자 〈새정치포럼〉 13호를 배포하면서 대선을 앞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책자에는 지난 7월 31일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와 새연등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인사를 방문했을 때 설한 혜암스님의 법문 전문을 실었다.

이 책자는 4만부를 제작, 전국 주요사찰과 불교계인사들에게 배포됐다. 국민회의 홍보기획국의 한 당직자는 경기·부산지역의 몇 사찰에서는 추가배포를 요구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지난 호에는 개신교계 인사들과 김대중총재와의 대화내용을 책자와 녹음테잎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새정치포럼은 국민회의 홍보책자로 격주간으로 발행된다.

대선용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당의 홍보목적과 함께 각계 어른들의 '말씀'을 책자로 만들어 국민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라며 "대선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은만큼 대선용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그러나 이 책자가 내년 대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당내의 분석은 있었다고 말했다.

해인사측은 이에대해 혜암스님의 법문이 책자로 만들어져 배포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한 스님은 "방장스님은 법문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간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찌 쓰든 따로 말씀을 하시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계에서는 정치권의 대선바람이 일찌감치 불교계에 닥치면 이익될 것이 없다며 경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또 선거바람이 불교계에 일찍 불어닥칠 경우 총무원을 비롯한 교계의 대표적 단체들이 중립선언을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요강

1989년 설립되어 불교 전통의식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는 「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前 불교전통의식 교육원)」에서는 앞으로 불교계의 발전과 조상이 남기신 훌륭한 문화유산인 범패와 승무, 요잡 및 작법등 불교의식의 전통의 맥을 우리 후손에게 잘 전승해 주었을때 그 종교적 가치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교육대학에서는 범패의 가치성을 보다 높이고 계승·발전시키고자 불교전통의식에 뜻이 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입학을 바라고 있습니다.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合掌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제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제

2. 응시자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수계 득도한 자
2)오계를 수계한 자
3)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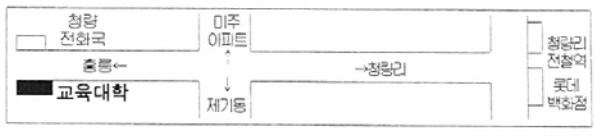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 1)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수계증명서 사본
3)추천서
4)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5회(월~금)

접수일자 : 1996년 8월 26일~9월 15일

▼ 약 도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현불뉴스

송광사 방장추대 논의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주지 현고)는 지난 8월25일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승찬스님 열반에 따른 제 5대 조계총림 방장추대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13일 효봉스님 열반 30주기 추모식날까지 제반사항을 합의한뒤 문중회의를 소집, 방장스님을 추대키로 했다.

미얀마등 조사단 파견

세계기아 질병 아동구제기구인 이웃을돕는사람들(회장 송산스님)이 미얀마 스리랑카등 동남아 불교국가의 기아 및 질병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9월초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다.

김동흔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한 현지조사단은 현지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빈민구호사업 교육사업 주민자활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조계종 강원학인 1329명

현재 조계종 승가대학(강원)에서 정진중인 스님은 비구 4백81명 비구니 8백48명 등 총1천3백29명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교육원에 따르면 운둔사승가대학이 2백28명으로 가장 많고 1백명이상 수행중인 강원은 해인사승가대학, 봉녕사, 동학사 등이다.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오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에서 열리는 제3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를 중앙일보, KBS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청교련은 전국의 각 지부 지회 및 시설체 29개 단체가 참여해 사회복지, 의료, 환경, 교통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부산지도자 하계수련

부산불교지도자 하계수련회가 지난 8월 24~25 양일간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 주최로 통도사포교원, 부산거사림회, 한마음선원 등 30여개 단체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칠불사에서 열렸다.

레크리에이션 특강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는 오는 2~30일까지 종로 대각사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 특강을 개설한다. (02)738-3933

조계종 '스님 노후 연금제' 실시

월주총무원장 하반기 사업계획 40세이상 의료비 전액 지급

불교종합회관 98년 준공목표
승가대 김포학사 99년 문열어
분담금 30% 교구예산에 보조

내년부터 40세이상의 스님들에게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종단에서 의료비전액을 부담하고 승려노후 연금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메머드 불교종합회관(조계종 청사) 건립이 본격화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8월27일 특별담화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사업계획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월주스님이 밝힌 출가수행자 노후복지대책은 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40세이상 종단소속 스님들의 재해 질병시 의료비제공 및 사고후 보장, 장례비지급과 노후연금지급 등을 위해 내년도 종단예산에 15억원을 책정할 계획이다.

숙원사업으로 펼쳐온 조계종 청사건립은 조계사부근 부지 매입이 끝남에 따라 하반기에 불교종합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9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승가대학 이전불사는 9월중으로 김포 금정사부지 토목공사를 착공해 99년부터 신입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구예산제 실시에 따라 중앙분담금의 30% 범위에서 각 교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승풍진작을 위해 일부 종도들의 사치성 해외여행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월주스님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전 종도들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다"며 원만한 회향을 위해 사부대중의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청와대불자회 창립 회장에 박세일 수석

청와대내 불자직원들의 신행모임인 청불회가 창립됐다. 청불회는 지난 8월26일 발기인모임을 갖고 회장에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부회장에 배재육 사정비서관을 선출했다. <차주에 회장 인터뷰> 창립법회는 9월 중순 조계사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는 행정관급 이상 직원불자 60명 가운데 40명이 참석했다.

청불회원으로 참여한 주요인사는 이각범 정책기획수석, 김성동 교육비서관, 박영환 공보비서관, 강상일 인사재무비서관, 김상봉 부속실의전비서관 등이다.



◇불일범종에 양각된 민족의 성지 백두산 천지.

법련사 통일기원 '불일범종' 완성

13일 타종법회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현호)는 민족의 염원이며 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통일기원 불일범종을 조성하고 오는 13일 오전10시 타종법회를 개최한다.

청동 1천6백관의 불일범종은 한국불교전래 1600년 송광사의 16국사를 상징하며 불국정토 실현을 염원하고 있다.

한편 불일범종 조성을 기해 법련사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월탄스님(용화사 회주) 고산스님(쌍계사 조실) 월운스님(봉선사 회주)을 초청하여 특별기도 및 설법회를 개최한다.

용천사 '절앞 상가' 절대 반대

"환경훼손 불보듯"… 철회 서명운동 전개

천년고찰앞에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찰측과 심한 마찰을 빚고있다.

신라 문무왕 10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용천사(주지 성종·경북 청도군 각북면)는 지난 8월28일 동대구호텔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용천사앞 상가건설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행정당국은 용천사앞 상가건설을 불허할 것 △상가건설 당사자는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 등을 주장하고 상업주의적 개발논리에 맞서 사찰환경권을 수호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상가가 건설될 경우 고기냄새가 법당에 흘러들어옴은 물론 용천사의 지하수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용천사는 사찰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상가건설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용천사는 대웅전이 경북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95호로 지정되어 있다.

승려 분한신고 미필자 조사

조계종 호법부, 9월부터

조계종 호법부(부장 혜담)는 지난 8월 27일 업무계획안을 통해 승려 분한신고미필자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97년 11월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90년 실시한 분한신고 미필자 3천명과 86년이후 사건관련 승려 및 징계자 5백명을 대상으로 △호적변동사항 △교구별 거주현황파악 △징계승려의 사찰거주 및 수행현황 △승려의 사실혼여부 및 재산관계를 조사한다.

호법부는 또한 이번조사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기위해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승려분한신고 미필자 자진 제적원신고기간으로 공고했다. 호법부는 자진제적원을 신고한 승려에게는 종단차원으로 환계의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호법부장 혜담스님은 "종단적 배려로 자진신고기간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않고 종단을 사칭하여 승려 본분을 위배할 경우 전원중징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산불교 중·고생연합회 '흙사랑봉사' 현장

"130여명 종교초월 합심 땀흘리며 마음공부"



◇표충사 일대서 농촌봉사활동을 하고있는 청소년들.

방학 막바지에 농촌자원봉사활동에 나선 1백30여명의 학생들은 퇴비를 뿌리고 수확이 끝난 덩쿨을 걷어내느라 고무신이 진흙투성이가 되는줄도 모르고 일에 한창이다.

부산불교중고등학생연합회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한 '불교청소년 흙사랑 자원봉사'를 결성, 지난 8월27~30일 3박4일의 일정으로 표충사일대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

수확을 끝내고 말라붙은 덩쿨을 뽑아내던 문민영양(사직여고 1)은 "개신교인으로 다른 종교를 체험해 보고싶다는 호기심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말하고 "불교식의 기도, 합장하는 법을 배우면서 조금이나마 불교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 기쁘다"며 땀에 젖은 얼굴로 활짝 웃어보였다.

또 농가의 일손을 돕는 노작외에 자기개조를 위한 수행에도 참여한 김효진군(금정중 3)은 "이번 농활에서는 농촌을 돕는다는 기쁨외에도 '묵언'과 '발우공양'을 통해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법을 배웠고, 불교수행면에서 많은 점을 경험해 무척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초심자 등 종교를 초월해 '작은사랑 큰기쁨'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남여학생들은 농사일이 처음이라 얼굴이 땀 범벅이 되고 옷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강요와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따라왔던 진성군과 성경양은 농활의 보람과 기쁨에 찬 얼굴로 힘찬 일손을 놀렸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은 생활속의 포교를 이뤄냈다는 성과외에도 '점수따기 위한 방편'처럼 되어버린 자원봉사활동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밀양=천미희 기자〉

생명나눔실천회 대구지부 10월 설립

(사)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부산 광주지부에 이어 대구지부를 창립한다. 생명나눔실천회 대구지부 창립준비모임(위원장 심업)은 지난 8월 28일 대승포교원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창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준비모임에서는 오는 10월20일 대승포교원에서 창립법회를 갖기로 하고, 창립후 회원확보, 개안수술자를 비롯한 신장 심장수술자의 수술비지원, 기증절차 수속대행, 기증자에 대한 장례식등을 거행키로 했다.

올 동안거부터 기초선원 운영

조계종 기초선원운영위원회(위원장 무여)는 지난 8월 26일 대구 동화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초선원을 금년 동안거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초선원 시행령(안)을 종령화 하도록 한다 △기초선원시행은 동안거부터 실시 △기초선원 모범도량을 다수 선정한다 △기초선원 중심도량은 9월종회에서 지정발도록 한다 등 4개항을 결의했다.

운영위는 이날 혜암스님(해인사 방장)을 방문,해인사를 기초선원 중심도량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초선원운영위원장 무여(축서사주지)스님을 비롯 원융(해인사선원장) 진허(금당선원장) 인각(범어사선원장) 휴암(기기암 주지) 혜국(남국선원장)스님과 종회의원 현봉(송광사) 명진(봉암사) 스님이 참석했다.

전문직 종사자 연수 활성화

조계종 "사회 영향력 고려 불교이해도 높이자"

전문직종사자 대상의 각종 연수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신문·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에 대한 소양을 증진시켜 불교를 바르게 홍포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12월 6~7일 방송언론인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직언론인 연수는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50여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또 13회째 맞는 방송작가 초청세미나도 예전과는 달리 행사내용과 규모를 확대해 실시한다. 10월 4~5일, 송광사 예정.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 종사자들의 불교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연수기회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직장신행단체 지도자연수(9.21~22), 전국사찰 포교소임자 연수(10.15~17), 전국 신도회장단 연수, 파라미타 지도자대회도 올 하반기중 실시키로 했다.

인도서 국제대법회

부불련·부산BBS 주관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방송은 공동으로 오는 10월21일 인도 뉴델리시 특실 법회장에서 달라이라마 초청 국제대법회를 봉행한다.

부불련과 부산불방은 불교도의 단합된 의지를 천명하고 양국간의 우의도모와 교류확대,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대회의 국민적 열기고취를 위해 이번 국제대법회를 준비했다.

이번 국제대법회는 '인류평화와 보존'이라는 슬로건 아래 달라이라마 설법, 마정수기를 비롯 달라이라마 친견, 사성지순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마음 물질과 마음은 하나

물질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물질따로 마음따로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세계는 마음의 나툼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물질이나 마음이나 다같이 불성의 나툼일 뿐이란 말입니다. 고로 천백억 화신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생활 속의 불교 ⑧⑦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옛 시조에 이런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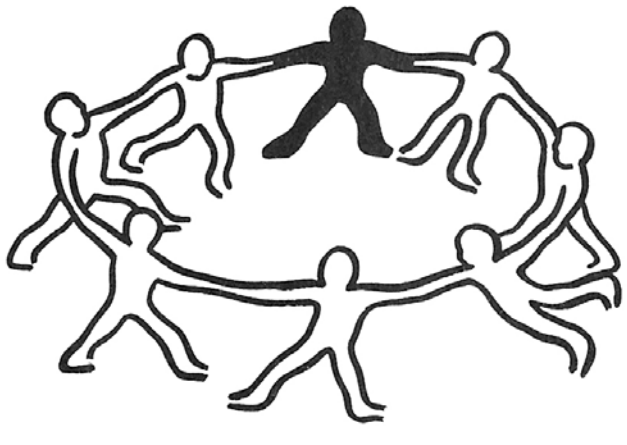
'말하기 좋다하고 남의 말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말이란 생각의 전달수단이요 뜻의 표현이요 마음의 매개체이다. 그런데 이 시인은 '말 말을까 하노라' 말하고 있다. 바로 구업(口業)을 경계하고 있음이다.

우리는 잠시도 쉬지않고 몸·입·뜻으로 업을 짓는다. 일거수 일투족이 다 업을 짓는 일이요, 말 한마디 한마디로써 또 업을 쌓고 생각 생각을 씨줄 날줄로 삼아 업의 그물을 짓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늘 고달프고 어수선하고 불안하다. 뿌리고 거두고 다시 뿌리는 과정이 대체로 청정하지 못한 까닭이다. 시인은 그래서 말로 짓는 구업만이라도 덜어보겠다는 심회를 털어놓은 모양이다.

그러나 구업이 두렵다고 말을 않고 살 수는 없다. 신·의업이 두렵다고 꼼짝않거나 아무 생각없이 살 수도 없다. 실은 안하는 것도 업이기 때문에 짓고 받는 업의 그물 밖에서 홀로 머물 수는 없다. 무정물이 아닌한 그렇다.

고로 문제는 안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 머무는 마음이 없이 함으로써 절로 청정한 행이 되게 하는 데 있다. 무엇엔가 애착을 두지 않은 말, 나를 앞세우지 않는 생각, 오로지 행동 그 자체가 목표인 행동. 적어도 그런 차원의 삼업이 소중한 것이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내뱉는 말이란 대체로 인쇄공의 활자 틀 같은 한계를 갖는다. 말하자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상자 속에서 그때그때 골라낸 생각들을 밖으로 표현해 내는게 말이다. 고로 말은 생각의 상자를 벗어난 범위는 표현할 줄도 모르고 표현할 수도 없다. 마음공부가 언어도단 불립문자—말로서 미치지 못하는 말이 끊어진 자리요 문자로 드러낼 수 없는 경지를 강조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 상자를 참으로 애지중지한다. 좀체로 그 상자 밖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심지어는 상대의 생각·처지까지도 내 상자 속에 집어넣으려한다.

말이 말을 낳고 말로써 말이 많아지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시인의 말처럼 '남의 말 내하면 남도 내말 할 것이니 말 말을까 하노라'를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 다툼은 이익 다툼이 되고 심하면 아귀 다툼이 될테니까.

말 한번 잘못하고 행 한번 잘못하면 그 누(累)가 내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역대 조사들한테도 미치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도 미친다. 왜냐? 그것은 참으로 광대무변한 마음도리를 더럽히고, 위없는 가르침에 먹칠을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계율중에 말과 관련된 금계(禁戒)가 많은 까닭도 그것이다.

진실이 담기지 않은 말은 비록 겉치레가 그럴싸 멋지더라도 볶은 씨앗과 같아서 아무런 공덕이 없다. 더욱이 자신의 이익, 생각이나 이념,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날을 세운 말이라면 그런 말은 상대를 죽일뿐 아니라 나를 죽이고 앞서 산 사람, 뒤에 오는 사람을 다 죽인다. 고로 말을 해야할 경우라면 그 말은 진실한 말, 따뜻한 말이어야 한다.

예불 첫 머리에서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을 왼다. 이제부터는 진실한 말만을 하겠다는 준비이자 다짐이다.

정구업진언이야말로 매일매일 우리가 첫 입을 때는 순간의 말이 되어야 한다. '말 말을까' 하지말고 진실한 말을 다짐하자.

협찬: 주 인 공

건강백세 ㉓



등

등은 척추동물의 전신을 지탱한다. 특히 직립동물인 인간은 등부분에 전신기능의 상태가 표현된다고 할 수있다. 한의학에서는 일찍이 이 점에 착안하여 오유(수)혈 (五兪穴)이라하여 오장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혈점들을 찾아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였었다.

중앙에 있는 척추는 벽돌 모양으로된 작은뼈들이 상하로 정렬조립 되어 특이한 '궁(弓)'형으로 만곡되어 있다. 척추 속에는 척수가 존재하여 뇌수와 더불어 중추의 한부분을 떠맞고 있는 것이다. 척수는 전신기능의 전달과 보고, 응급대응 조정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등이 접촉, 충격들을 받아 손상이나 변형을 일으키거나 외부기온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등부분에 일어나는 통증은 단순한 과로에서부터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장기에 관련된 질환이나 변화를 예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진단을 통해서 원인규명과 처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심유(心兪) 부위의 통증은 심장질환의 예고편일 수가 있어 조기발견의 계기가 되기도한다. 광소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나 심장주위에 부담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심유부를 가볍게 지압 해줌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기도 한다.

간유(肝兪), 위유(胃兪), 대장유(大腸兪)등 소화기계통과 관련이 있는 곳은 급만성 소화불량이나 체증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 침구치료나 지압, 맛사지를 통해 많은 효력을 보거나 증상이 가벼워짐을 임상에서 흔히 경험한다.

'등이 따뜻해야 잘자고 건강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등부분이 온난해야 혈액순환이 잘되어 오장육부의 기능이 원활해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보온에 유의해야한다. 또한 운동이 부족한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되면 어깨나 등부위가 딱딱해지면서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된다. 몇번 긴장이 반복된후 적절하게 근육을 이완시켜주지 않으면 순환장애는 더욱 심해져서 담을 비롯 각종통증을 유발하게된다.

수영과 가벼운 달리기는 짧은 시간안에 통증을 회복시켜준다.

등부위 통증 심장등 장기질환 예고
불면증일때 심유부 지압하면 효과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양수리의 법당 ④·〈끝〉

주부신행담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업보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다
법당찾아 지성을 다하자
차츰 악몽의 굴레가 걷히는듯…

내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가게를 막 나서려는 늦은 오후였다. 어디를 얼마나 다쳤다는 말도 없이 무조건 병원으로 오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정신 없이 달려간 응급실에는 동네 사람 몇명과 아들이 있었다.

"어떻게 된거냐?"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다.

"엄마, 현아가 친구집에 가다가 차에 치인 거예요. 많이 다쳤대요." 의사를 찾아 물어보니 대퇴부에 금이 간 것과 찰과상등 외상은 어떻게 치료가 되겠지만 뇌에 손상을 입었을까 매우 심려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의사 앞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

다음날부터는 병원과 집 그리고 경찰서를 다니느라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참담한 세모였다. 아이는 몇번이고 검사를 해야 했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점잖게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현아의 과실도 크다고 배짱을 내밀며 치료비 보상문제를 까탈스럽게 물고 갔던 것이다. 그럴때도 나는 내가 남자였다면, 내가 아버지였다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혼자 눈물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새해가 시작 됐다. 악몽의 연속이었다. 숫해 불면의 밤이 더 많았다. 나는 부처님을 찾았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간절한 외침, "부처님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업보의 덩어리가 남아 있나요"라고 탄식도 했고 "부처님 우리 현아만 살려 주시면 무슨 일이든 부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란 다짐도 숱하게 했다. 그리고 집에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을 것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집에 부처님 한 분을 모셨다. 준이 엄마의 주선으로 스님을 모시고 점안과 안택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새벽마다 예불을 모시고 기도를 했다. 차에서 병원에서 가게에서 나는 부처님의 큰 힘이 나와 가족을 지켜 주실 것이란 생각만 했다. 나의 생각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다시 간절한 기도였다. 그러한 나날들 속에서 나는 현실에 대한 집착 보다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자세가 중요한 것임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그만큼 마음도 편해졌다.



그림 · 이준석

다행이었다. 현아는 뇌에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 운전자는 증인들의 증언과 당시 상황을 밝게 분석한 경찰앞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나 자신이 부처님께 내 가족의 안위를 비는 입장에서 까다롭게 합의조건을 낼 수는 없었다.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겨울방학이 다 끝나도록 병원에 드나들었다. 현아는 무척 갑갑해 했고 나는 다시 가게를 일으키기에 바쁜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뛰어야 했다. 물론 부처님을 향한 기원은 계속 이어졌다. 아침에 일어나 천수경을 틀어 놓고 따라했고 차에서도 염불을 들으며 따라했다. 천수경과 반야심경은 외울수 있을 만큼 열심히 들었다. 현아가 다시 학교를 나가고 점점 좋은 성적의 답안지를 자랑했고 아들녀석도 "일류대에 가서 엄마 고생 덜 시켜 드릴께요."라며 남들 다 하는 과외도 못하면서도 상위권을 유지해 주었다. 가족들의 얼굴이 다시 밝아지고 내 마음이 편해져서일까, 가게도 점점 잘 되었다. 서먹서먹하던 박부장도 알게 모르게 돕고 도움주는 사이에 원망스럽던 마음이 없어졌다.

잔인하게 맞은 그해의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왔을때 나는 아이들과 양수리를 찾아갔다. 그 고색창연한 법당에서 내가 받은 힘을 설명해 주었다.

내가 어려울때 달려 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큰 행복이었고 힘이었다. 신도로 등록도 하지 않고 내 사정이 급해질때만 달려갔던 그 법당, 그후로도 나는 그렇게 양수리의 법당을 찾곤 하는 것이다.

정보리심 〈서울 성북구 성북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㊹

♦ He does not take what has not been given to him - so said the Yakkha satagira, - and he is self-controlled in him behaviour to living beings, and he is far from a state of carelessness; Buddha does not abandon meditation.

그분은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그분은 산 것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신의 습성을 조심한다. 그분은 경솔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부처님은 명상을 그만두지 않는다. 칠악야차가 말했다.

♦ Does he not speak falsely ? - so said the Yakkha Hemavata, - is he not harsh-spoken? does he not utter slander? does he not talk nonsense?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또한 귀에 거슬리는 말도 하지 않을까? 그는 욕설을 입 밖에 내지 않을까? 이간질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리석은 말도 하지 않을까? 설산야차가 말했다.

♦ He does not speak falsely - so said the Yakkha Stagira - he said not harsh-spoken. he does not utter slander, with judgment he utters what is good sense.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귀에 거슬리는 말도 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 이간질이나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의식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판단해 욕설을 입 밖에 내지않는다. 칠악야차가 말했다.

*far (a) 휠씬, 단연
*control (v) 조심하다 (self-controlled 스스로 조심하다)
*behaviour (n) 습성, 행동
*far from~ ~로 부터 멀리 떨어진
*carelessness (n) 경솔, 부주의
*abandon (v) 그만두다, 단념하다
*falsely (ad) 거짓으로, 속여서
*harsh (a) 귀에 거슬리는, 거친
*utter (a) 말하다, 입 밖에 내다, 누설하다
*slander (n) 욕설, 중상
*nonsense (n) 허튼소리, 어리석은 생각
*sense (n) 의식, 분별, 느낌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히말라야의 새 ⑤
루디야드 키플링 作



그림 · 심민섭

크레이튼 대령과 마흐붑 루간등 예의해 킴은 남쪽으로 여행을 가게 됐다. 첩보활동을 위한 6개월간의 여행이었다. 킴은 학교에서 배운 문자와 지혜를 동원해 남쪽의 낯선 땅들을 다녀야 했지만 기쁘기 그지 없었다. 학교를 벗어 난다는 사실과 한달에 20루삐의 돈이 지급된다는 것, 무엇보다 기쁜 일은 그 여행을 그의 마음속 스승과 함께 한다는 것이었다. 킴은 바라나시로 갔다.

"인도 전역에서 나만큼 고독한 사람은 없어. 내가 오늘 죽는다면 누가 그 소식을 전해 줄 것이며 또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킴은 누구인가. 나, 킴은 누구란 말인가."

킴은 바라나시로 가는 기차에서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 매우 깊이 생각했다. 바라나시는 너무나 지저분해서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킴은 수행자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약간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바라나시에서 킴은 티벳에서 온 노스님을 다시 만났다. 열병에 걸린 농부의 아들과 함께 킴이 나타나자 라마승은 몹시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 농부는 수행자 복장을 한 킴에게 아들의 치료를 애원했고 킴은 그들을 그의 스승이 있는 사원까지 데리고 간 것이다. 농부에게 약을 줘서 돌려 보내고 라마승과 킴은 재회의 인사를 했다.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스님의 덕분입니다. 전 지난 3년동안 스님의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이제 저의 시간은 끝났어요. 저는 학교에서 해방되었어요. 이제 스님께로 다시 왔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보상받았다. 어서 들어 오너라."

스님은 바라나시를 근거로 여러차례 강을 찾아 여행을 했고 아직 그 강은 찾지 못한 상태였다. 스승과 제자는 정답게 지나 온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여행을 떠나야 할 서로의 앞길을 예견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누가 알까
나, 킴은 누구란 말인가

"우린 어디로 가나요."

"무슨 상관이냐. 전세계의 친구여, 우리의 추구는 이제 성공한 것이나 다름 없어. 필요하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감물이 솟아나올 것이다. 난 너를 배움의 문 안으로 보내 지혜라는 보석을 줌으로써 많은 공덕을 쌓았다. 넌 나에게 돌아왔고, 난 지금 진정한 의사인 부처님의 추종자를 보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해. 우린 함께 있으며 모든 것이 전처럼 되었어. 전 세계의 친구이며 발들의 친구, 그리고 나의 챌라인 네가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다음날 라마승과 그의 챌라는 아들을 안고 약을 얻으러 따라왔던 농부 캄보와 함께 길을 떠났다. 기차의 화물칸을 타고 북쪽의 델리를 향해 가는 여행이 시작됐다. 그들이 탄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허겁지겁 마하라타(무사) 한 사람이 올라탔다. 험상궂은 인상이었다. 거기다 다리 한쪽은 붕대로 감고 있었다.

한 · 중 · 일 삼국불교 교류대회 기념 불교문화대제전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

여의도가 부처님의 큰 향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민족정신에 큰 뿌리로 자리해 온 불교문화!
큰 잔치-불교문화대제전에서 그 숨결을 느껴 보십시오

•행사내용

문화관 (불교 문화에 관한 제반적 것)		생활관 (신행활동에 관심으로 접근할수 있는상품에 한 것)		이벤트 (불교의식 예술 문화행사)
역사관	한 · 중 · 일 삼국의 불교문화 각 분야의 전시	삼동산업관	법복 가공분야 법구 소재분야	• 출산의 날 • 사경 참선법회 • 출산 서도 법회 • 사경 서각체험 • 명상회 • 세계 각국인 불자 초청법회 • 불교 합창단 창단제 • 한국 불교 산업 무속 공연 • 노인 위안잔치 • 공식장례 공연 • 스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시장 • BBS 공개방송 • 108 공개방송 • 갑고 합기도등 무술대회 • 한방 건강센터 운영 • 경희그리기 • 연등 만들기 • 청소년 백일장 • 5분 생활법문
현대미술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교 미술인들의 초대전	동우산업관	각종 목선물 전시 판매	
출판관	각 출판사 역사 현황 자료 전시	일반산업관	식품 및 건강산업관	식품관련분야 건강기구관련분야
영상관	불교영화 video제작소 소그램 상영		레저 스포츠 용품관	스포츠 관련용품 제작용품
공예품관	각종한 불교공예품 전시		여행사관	및 단체관광 안내서비스
사찰음식전시관	사찰고유의 전래음식을 전시			

• 생활관 입주업체를 모집 합니다 관심 있으신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사명
한 · 중 · 일 삼국불교 교류대회 기념
불교문화대제전

•일 시
1996년 9월 5일(목) ~ 9월 14일(토)

•장 소
여의도광장

•주 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 관
불교TV, 경성기획

불교문화대제전 추진위원회
Tel:(02)3270-3349/50